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14호

Thursday, May 9, 2024 A

## 페어팩스 재산세, 라우든보다 30% 높다

### SPECIAL STORY

페어팩스 카운티 1.125 달러  
라우든 카운티 0.865 달러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주택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100달러 당 1.095달러에서 3센트 인상해 1.125달러로 책정한 예산안을 9대1로 통과시켰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이같은 세금인상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증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으나 비난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주택 재산세는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액은 수직 상승했다. 올해 시가표준 인상률은 2.86%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재산세가 2.86% 자동 인상되지만, 세율인상까지 겹쳐 주택 소유주 평균 450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 카운티 당국은 6년만에 재산세 세율을 인상한 것이며 최소한의 카운티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세금 인상의 방어쇠 역할을 한 것은 교육청 예산이다. 카운티 교육위원회

는 2025회계연도 예산청구보고서를 통해 1억6500만달러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 대비 5%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교육청이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25%에서 6% 사이로 차

등 결정됐다. 카운티 정부는 공무원 보직 42개를 감축해 인건비 3400만달러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알링턴 카운티도 과세표준 100달러 당 2센트 인상한 1.033달러 세율을 확정했다. 알렉산드리아 시티도 2.5센트 인상한 1.135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라우든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데이터센터 세금을 인상하고 주택 재산세를 줄였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재산세 세율은 4.6센트 인하여 0.920달러를 확정지었다. 라우든 카운티는 3년 만에 다시 재산세 세율을 1센트 인하여 0.865달러를 확정 고시했다.

페어팩스와 라우든 카운티 재산세 세율을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페어팩스 카운티 세율(1.125%)은 라우든 카운티 세율(0.865%)에 비해 30% 이상 높다. 두 카운티 재산세 세율 격차는 15년전 6%에 불과했다. 김옥채 기자

### 소셜 연금 고갈 늦춰져 작년 기대 이상 경제 성장에

지난해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소셜 연금 고갈 시점이 1년 뒤로 늦춰졌다.

6일 발표된 사회보장국(SSA)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소셜 연금 기금은 2035년부터 고갈될 전망이다.

2034년으로 예측했던 작년보다 1년 연장됐다. 이후부터 예정된 연금의 83%만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메디케어 기금은 작년 예측보다 5년 늦어져 2036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작년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성장함에 따라 세수 및 노동생산성 추정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3~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각각 4.9%, 3.4%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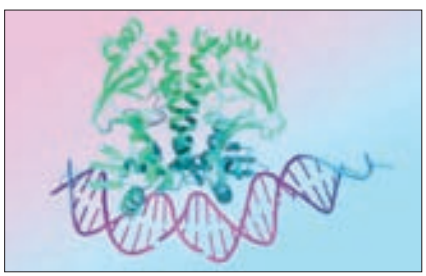
이하은 기자

## 수년 내 AI가 “암 정복 할 수도”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업인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는 8일 “향후 수년 내(next couple of years) AI가 처음 설계한 약이 환자에 투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사비스 CEO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인 ‘알파폴드’(AlphaFold) 최신 버전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구글 딥마인드는 2018년 처음 공개한 ‘알파폴드’와 2020년 나온 ‘알파폴드2’에 이은 ‘알파폴드3’를 공개했다. 관련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알파폴드’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결과 (구글 딥마인드 제공)

실렸다. 허사비스 CEO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담은 새로운 논문을 네이처지에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발표는 구글 딥마인드에 중요한 이정표

라고 말했다. 알파폴드3는 기존 모델이 제공하던 인체 내 단백질 구조 예측을 넘어 모든 생물학적 분자 형태와 상호작용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세포는 단백질, 유전자(DNA) 등 수십억 개의 분자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데, 알파폴드3는 생명체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생체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단백질과 다른 분자 간 상호작용에 관한 예측은 기존보다 50% 이상, 특정 상호작용에서는 정확도가 두 배까지 높아졌다고 구글 딥마인드는 밝혔다.

▶6면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이등병 아빠,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 제52회 어버이날인 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2교 육대 수료식에서 임경택 이등병이 생후 9개월 딸 주연양을 안아주며 즐거워하고 있다. 결혼 후 뒤늦게 군에 입대한 임 이등병은 그동안 딸과 아내를 정성껏 보살펴준 장인-장모에게 “군 복무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카네이션 브로치를 직접 달아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수출 살렸지만 물가·세수 비상...“경제성과, 국민 체감 못해”

## 윤 정부 2년 경제성적표

수출 회복되면서 1분기 깜짝 성장  
고물가·가계부채·일자리 ‘숙제’  
“국민 체감 못하는 성장, 의미 없어”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소득·재정 주도 성장’ 대신 ‘시장·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웠다. 하지만 이런 ‘윤석열표 정책 전환’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수출과 성장률은 점차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악화 속 고(高)물가, 고(高)금리, 고(高)환율이란 삼각 고고에 크게 위축된 내수와 민생 경기를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종합점수 격인 성장률이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전년 대비)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인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오른쪽부터)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오후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강정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등 대형 위기를 제외하면 최저 수준이다.

다만 올 들어 수출 회복세와 함께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 0.8%(전 분기 대비)에 그친 GDP 증가율은 올해 1분기 시

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3%까지 올랐다. 8분기 동안 GDP는 4.3% 성장했다. 한국 경제의 연간 잠재성장률(2%대 초반)만큼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깜짝 성장을 이끈 건 1분기 부진했던 수출이다. 2022년 2분기 6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는 같은

해 4분기 적자가 186억 달러까지 불었다. 반도체·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이 회복하며 올해 1분기 9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다.

‘건전 재정’ 기조도 전 정부와 차별화 포인트였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유혹을 뿌리쳤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제는 ‘세수(국세 수입) 핑크’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6조 4000억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다. ‘불용(不用·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쓰지 않음)’ 규모(45조 7000억원)가 역대 최대일 정도로 재정 효율성도 떨어졌다. 기재부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한다. 그 결과 국가 채무는 2022년 1067조원 수준에서 올해 1196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에서 51%로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임기 전반 고(高)금리와 고(高)물가

도 체감 고통을 키웠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 5.4%에 달한 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을 올해 1분기 3%까지 떨어뜨렸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와는 격차가 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에서 지난해 100.4%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연착륙 대책과 대출 규제 등 덕분에지만 여전히 위험수위다.

지난해 고용률(62.6%)은 역대 최대, 실업률(2.7%)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청년·제조업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그늘도 짙었다.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미미로 남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를 극복할 시효가 지난 만큼 이제 집권 3년 차 ‘윤석열표’ 경제 정책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 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오전 출소

심사위 “나이·형기 등 종합적 고려”  
야당 “대통령 장모에 어버이날 선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

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4월 심사에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아 5월 석가탄신일 가석방으로 심사가 넘겨졌다. 세 번 만에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셈이다.

이날 가석방심사위는 “최씨는 지난

달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번 심사에서) 유지했지만,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 대학 법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

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결재했다.

최씨는 가석방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이미 갖췄다. 가석방 심사 실무에선 통상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운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7월 20일)를 80% 이상 채운 상태다.

그동안 최씨의 가석방 여부는 야권의 주요 비판 대상이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정지적 맥락에서 최씨의 가석방을 불허한다면 다른 가석방 대상자와의 법적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허정원·양수민 기자

## 황우여 전당대회 연기론에 여당 술렁 황 추천한 윤재옥 “당에 도움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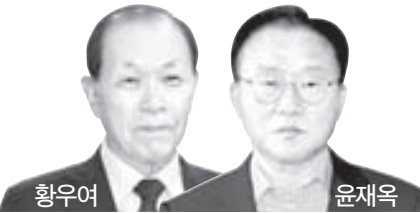
황 “8월에 해도 너무 늦은 건 아니냐”  
홍준표도 “육심부리지 말라” 비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연기론’에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황 위원장은 8일 YTN 라디오에서

“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8월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건 아니냐”며 “단약 전당대회 시기를 6월 말로 못 박으면 5월 20일께에는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선거(5월 9일) 직후 라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은 지난달 말 당선인 총회를 통해 ‘6월 말~7월 초 전대’로 가닥을 잡았는데 황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한 달가량 밀리게 된다.

당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육심



황우여

윤재옥

부리지 말고 전당대회 관리만 하라”고 적었다.

황 위원장을 추천한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황 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당대회가 연기되면 총선 패배 책임론이 희석돼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천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저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서 졌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한 전 위원장도 출마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황우여 비대위는 10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친 뒤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다.

김효성·전민구 기자

**워싱턴 날씨 (°F)**

10일(금)	66~53	13일(월)	73~58
11일(토)	65~54	14일(화)	75~64
12일(일)	64~49	15일(수)	75~65

5월 9일(목) 73~5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 대학가 시위 “민주당 큰손들이 배후?”

좌파 단체 대학가 시위 주도  
소로스 등 거물이 시위단체 기부



반전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정책을 공격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하는 큰손 기부자들이 이들 단체를 지원해 복잡한 셈법이 가동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시태가 바이든 지지 좌파세력의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가 반전시위를 지도하는 그룹은 전국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연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위한 네트워크, 이프 낫 나우, 평화를 위한 유대인 연대, 블랙 펜던스 등으로, 사실상 학생 단체가 아니라 외부단체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큰손 기부자인 조지 소로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소로스는 평화를 위한 유대인연대에 5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 단체는 현재 대학가 시위를 배후 조종하는 대표적인 비학생 외부 단체로 알려졌다.

이들 좌파 외부단체들은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그룹에 속했으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등을 돌린 상태다. 토드 벨트 조지워싱턴 대학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큰손 기부자들이 분열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대선 전략을 짜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옥재 기자

# 취업이민 2개월 연속 동결

국무부, 6월 영주권번호 발표  
가족이민 우선일자 소폭 진전

취업이민 문호가 2개월 연속 동결되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문호는 소폭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7일 발표한 2024년 6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되며 지난 달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

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1년 6월 1일에서 2021년 11월 15일로 5개월 가량 진전됐다.

가족이민 중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도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개월 개선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3개월 진전됐다.

하지만 가족이민 1·2·4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앞서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달 대폭 진전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2024년 6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가족 이민	1 2015년 7월 8일 (2015년 7월 8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1년 11월 15일 (2021년 6월 1일)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일)
	2B 2016년 4월 1일 (2016년 4월 1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3 2010년 3월 1일 (2010년 1월 1일)	2010년 9월 1일 (2010년 6월 1일)
취업 이민	4 2007년 7월 22일 (2007년 7월 22일)	2008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2023년 1월 15일 (2023년 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2월 15일)
	3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1월 22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2월 15일)
	4 2020년 10월 8일 (2020년 10월 8일)	2020년 12월 15일 (2020년 12월 15일)
5 2020년 11월 1일 (2020년 11월 1일)	2020년 12월 1일 (2020년 12월 1일)	
	오픈 (오픈)	오픈 (오픈)

괄호 안은 2024년 5월 우선일자, 자료:국무부

# “외국인이 본 통일의 길은?”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패스트라이쉬 교수 강연 성황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김유숙)이 주최하는 통일강연회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 교수를 초청해 지난 7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반도 통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강의는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의 하나됨이 아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개념이 되어야함을 강조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패스트라이쉬 교수는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은 보편적 가치와 한국인의 고유한 전통에 뿌리를 둔 국가비전에 기초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787년 미국헌법이 그랬듯 통일한국의 헌법은 우리 공동의 과거에 깊이 뿌리를 둔 창조적인 작품이어야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도덕에 호소하고 모



든 한국인과 전세계 영감의 불꽃을 뿜어내는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숙 회장은 “통일운동에 많은 교훈과 영감을 얻을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통일한국의 비전과 청사진이 통일 자체보다 중요함을 깨닫는 강연이었

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미국방 연구원 출신 오공단 박사를 비롯해 미주총연 김병직 회장, 석은옥 평통상임 고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미주통일연대 워싱턴은 오는 7월14일 제 1회 탈북자의 날 기념식 및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 워싱턴 차세대협의회 “기금 모금 야드세일”

워싱턴차세대협의회(회장 에이든 게일스)와 K김치세계연대 워싱턴 DC(위원장 실비아 패튼)가 오는 18일,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인터넷날 축제”에서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금 모금 야드세일을 진행한다.

야드세일은 “차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11월에 개최되는 김치축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워싱턴 차세대협의회는 해마다 열리는 김치축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타민족에게 널리 알리고있다.

야드세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진행되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봉사 시간 인증과 서티피케잇이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및 신청: kangwdc@gmail.com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703-281-9660



‘찾아가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인기 매월 둘째 주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서를비스를 제공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관람하는 ‘찾아가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프로그램이 8월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사관 관람 편의와 활용도 증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된 프로그램은 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JTBC 다큐, 휴스턴 국제영화제 대상

### AI 기술 미래 다룬 '딥 크리미널'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제57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및 TV 프로그램이 무려 38개의 상을 휩쓸었다. 그중 JTBC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딥 크리미널'이 TV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JTBC에서 방영된 '딥 크리미널'은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실태와 미래 전망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JTBC 이윤석 기자가 기획한 '딥 크리미널'은 JTBC 특집 프로그램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다큐멘터리가 사회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한국 방송심의위원회는 '딥 크리미널'을 두고 "다양한 취재와 실험을 통해 AI의 양면성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AI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영화제에서 총 8개의 작품이 대상을 받은 가운데 JTBC 측의 '딥 크리미널'이 유일하게 한국 작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의 대상 중 5개가 미국 작품에 돌아갔으며 한국, 중국, 포르투갈이 각각 1개씩 가져갔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방영한 TvN '썸머, 러브머신 블루스'가 베스트 편집상과 외국어 부문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으며 2관왕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저널리즘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김경준 기자

## 5쪽짜리 경찰 총격 규정, 맹점 투성이

경찰 총격으로 숨진 양용(40)씨 사건을 계기로 LA경찰국(LAPD)의 모호한 총기 사용 규정과 정신질환자 대응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APD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기 사용 규정(Use of Force Policy)은 2019년 개편 뉴십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SB230)에 기반해 2021년부터 적용된 최신 개정판이다.

바뀐 규정은 '현장 위험 감소 노력(utilizing de-escalation techniques)'을 최우선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많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법이나 방대한 분량으로 예상되지만 분량은 A4용지 5장에 불과하다. 내용도 무기의 합법적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분은 모호하기만 하다. 이 규정이 경찰의 보호막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기 사용의 기본 원칙은 '객관적으로 타당한(Objectively reasonable)' 상황으로 제한된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경관 자신이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imminent)'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경우다. 또 용의자가 즉시 체포되지 않는다면 타인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절박한 위협을 유발하는 사건 방지가 두번째다. 마지막으로 범죄자가 도주 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다. 단, 무고한 행인이나 인질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면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LAPD의 전체 총기 사용 규정중 자세하게 명시된 유일한 상황은 '차량을 조준한 사격과 차량내에서의 사격(Shooting at or From Moving Vehicles)'이다.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찰은 주행중인 차량에는 총을 쏠 수 없다. 단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타인을 공격할 시 총기 사용이 허가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돌진해오는 차량을 일단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장 큰 맹점은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다. 대원적인 '객관적으로 타당한 상황' 부터가 문제다. 경찰 발포 사건 조사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인명 우선'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 해석된다.

단적인 예는 경고사격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LAPD는



지난 2일 LA한인타운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의 유가족들이 사건현장인 자택 부근에서 비통해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조준을 피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경고 사격을 실시한다. 즉 경고 사격이 원칙이 아니라는 뜻이다.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얘기다. 비범죄적 상황에서 총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맹점이다.

경찰은 모든 현장 상황에 동일하게 거주법 '835 (a) PC'를 적용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질환자 등 상대의 취약성을 고려한 경찰의 차등적인 무력 대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에 대한 절차가 있지만, 경찰의 무력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인물임을 인지하고도 현장에서 총을 발포했을 때 책임을 묻는 방침은 없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예고된 위협에 적절하게 준비했느냐를 물어볼 방침은 마련되어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양씨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부모와 정신건강국 클리닉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간 지 2분 30초 만에 총을 발포했다. 무자비하고 성급한 대응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며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설명할 뿐이다. 경찰의 총격의 원인제공 책임을 양용씨에게 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수아 기자

## 강형원 기자 서재필언론상 수상

LA에서 활동한 강형원(사진) 기자가 서재필언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서재필기념회는 제13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수상자로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기자를 선정했다고 7일(한국시간) 밝혔다.

서재필언론문화상 선정위원회는 강형원 기자가 9·11 테러 등 국제적인 사건·사고의 생생한 현상 사진 보도, 6·10 민주항쟁과 88년 서울올림픽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발 빠르게 취재한 사진기자로, 현재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세계에 지식 콘텐츠로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강 기자는 LA타임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유수 언론사에서 일하며 풀리처상을 두 차례나 수상했다. 1993년 LA타임스 재직시 LA 4·29 폭동 사진 보도로 한국인 최초로 풀리처상을 받



았으며, 1999년 AP통신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르윈스키 스캔들 보도로 두 번째 풀리처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 기자는 현재 한국 문화 집대성을 목표로 영문과 한글 칼럼을 동시에 수록한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을 펴내는 등 한국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서재필기념회 이양준 이사장은 "서재필언론문화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한글, 영문판 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선생의 애국, 민주, 민권, 애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상"이라며 "조선의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자세히 알게 하고자 영문도 함께 기록한 독립신문의 정신을 고려하면,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강형원 기자야말로 이 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 M4칩 아이패드 출시 애플, AI 경쟁 승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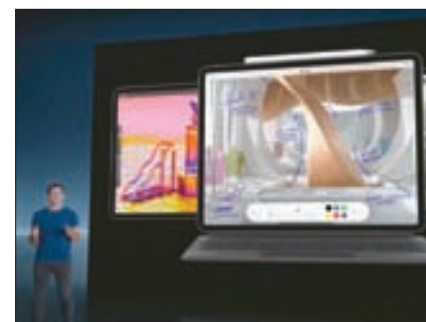
애플이 자사가 개발한 최신 칩 'M4'를 내놓으며 지지부진했던 인공지능(AI) 경쟁과 아이패드 판매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나섰다.

애플은 7일 온라인으로 '렛 루즈(Let Lose)' 이벤트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는 AI를 위한 칩이라는 M4칩이 탑재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M4에는 AI 기능을 하는 뉴럴 엔진이 탑재됐다.

이를 기반으로 M4는 A11 바이오닉 대비 속도가 60배 빨라졌고 아이패드 에 탑재된 M2 대비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은 50%,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속도는 4배 빨라졌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 존 테누스가M4칩을 장착한 아이패드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애플 유튜브 캡처]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오토론 이자율, 새차 7.1% 중고차 11.7%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  
평균 할부금 신차 735달러

오토론 이자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차와 중고차의 월 할부금 추이가 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차 가치 하락으로 '깡통차'가 급증하며 트레이드인 신차 구매 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전문매체 에드먼즈가 최근 공개한 1분기 오토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신차 오토론 이자율은 7.1%로 전년 동기 대비 0.1%p가 오르며 4분기 연속 7%대를 유지했으며 중고차 오토론은 0.6%p 상승한 11.7%를 기록했다.

월할부금은 신차가 평균 735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달러 증가한 반면 중고차는 평균 546달러로 전년보다 5달러 감소했다. 이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신차와 중고차 모두 각각 4달러, 15달러씩 줄었다.

월 할부금으로 1000달러 이상을 내는 신차 구매자 비율은 오토론 전체의 17.3%를 기록해 4분기 연속 17%대를 나타내고 있다.



다운페이먼트 액수는 신차가 평균 6682달러로 전년 동기 6956달러보다 274달러, 3.9% 줄었으나 중고차는 0.6%p 오른 이자율 부담 영향에 평균 4133달러로 134달러, 3.4%가 늘어났다. 오토론 액수의 경우는 신차가 평균 4만427달러로 전년보다 41달러, 0.1% 줄었으며 중고차는 평균 2만7774달러로 836달러, 2.9% 감소했다.

오토론 기간도 신차가 평균 68.3개월로 지난해 1분기 68.8개월보다 0.5개월 단축됐으며 중고차는 평균 69.7개월로 0.3개월 줄어 들었다.

에드먼즈의 인사이트 책임자 제시 카 칼드웰은 "신제품 출시와 인센티브 확장, 신차 재고 회복 등 구매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었으나 이자율 상승이 긍정적인 시장 모멘텀을 약화시켰다."

팬데믹 기간 차를 구매했던 소비자들 이 올해 신차 구매 시 예상보다 낮은 트레이드인 밸류 탓에 네거티브 에퀴티로 구매하게 됨으로써 재정 부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네거티브 에퀴티 구매는 1분기 전체 거래량의 23.1%를 차지해 지난해 18.3%, 2022년 14.7%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으며 네거티브 에퀴티 부채액도 사상 최고치인 평균 6167달러에 달했다.

네거티브 에퀴티 구매 시 월할부금은 지난 1분기 평균 887달러로 지난해 2021년 동기 662달러보다 34%가 급증했다. 이자율도 2021년 5.9%에서 1분기 8.1%로 37%가 상승했다.

네거티브 에퀴티(negative equity)란 트레이드인 하는 중고차의 가치가 차의 오토론 총액보다 낮아 부채가 남는 경우로 보통 신차 구매 시 새 오토론에 이전 오토론 부채를 추가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오토론 부채가 늘어남으로써 이자 부담이 커지거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 “집값·임대료 대폭 상승 전망”

뉴욕 연은 소비자 설문 조사

“1년후 주택가격 5.1% 오를 것”  
렌트비는 현재보다 9.1% 상승

집값이나 주택임대료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기지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지난 2월 실시한 소비자 기대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년 후 주택가격이 5.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의 예상 상승률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5년 후 집값 상승률 예상치는 2.7%로 전년 예상치 2.8%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임대료의 경우 1년 뒤에 지금보다 9.7% 오를 것으로 봤다. 이 상승률은 작년 예상치 8.2%보다 높은 것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5년 후 임대료 예상 상승률은 5.1%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으로 봤다.

조사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높은 수준인 모기지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1년 후 평균 모기지 금리는 8.7%, 3년 후에는 9.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2일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7.22%로 수년 전의 3% 미만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뉴욕 연은은 높은 모기지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저금리로 대

출받은 이들을 주택에 묶어두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비용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향후 3년 내 이사할 확률을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는 가계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늘렸던 저축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함자 압델라만과 루이스 올리베이라 이코노미스트는 3월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초과저축이란 실제 저축과 이전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의 예상 상승률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5년 후 집값 상승률 예상치는 2.7%로 전년 예상치 2.8%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임대료의 경우 1년 뒤에 지금보다 9.7% 오를 것으로 봤다. 이 상승률은 작년 예상치 8.2%보다 높은 것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5년 후 임대료 예상 상승률은 5.1%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으로 봤다. 조사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높은 수준인 모기지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1년 후 평균 모기지 금리는 8.7%, 3년 후에는 9.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2일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7.22%로 수년 전의 3% 미만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뉴욕 연은은 높은 모기지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저금리로 대

출받은 이들을 주택에 묶어두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비용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향후 3년 내 이사할 확률을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함자 압델라만과 루이스 올리베이라 이코노미스트는 3월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초과저축이란 실제 저축과 이전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의 예상 상승률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5년 후 집값 상승률 예상치는 2.7%로 전년 예상치 2.8%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임대료의 경우 1년 뒤에 지금보다 9.7% 오를 것으로 봤다. 이 상승률은 작년 예상치 8.2%보다 높은 것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5년 후 임대료 예상 상승률은 5.1%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으로 봤다. 조사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높은 수준인 모기지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1년 후 평균 모기지 금리는 8.7%, 3년 후에는 9.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2일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7.22%로 수년 전의 3% 미만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뉴욕 연은은 높은 모기지 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저금리로 대

출받은 이들을 주택에 묶어두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비용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향후 3년 내 이사할 확률을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함자 압델라만과 루이스 올리베이라 이코노미스트는 3월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초과저축이란 실제 저축과 이전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의 예상 상승률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5년 후 집값 상승률 예상치는 2.7%로 전년 예상치 2.8%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임대료의 경우 1년 뒤에 지금보다 9.7% 오를 것으로 봤다. 이 상승률은 작년 예상치 8.2%보다 높은 것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5년 후 임대료 예상 상승률은 5.1%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으로 봤다. 조사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 올트먼 “북한 기습을 AI가 방어? 따져볼 것 많아”

(챗GPT의 아버지)

미국 싱크탱크와 대담서 '신종론'

인간이 전쟁을 인공지능(AI)에 맡겨도 되는가. 최근 AI 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사진)도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고백했다.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AI 시대의 지정학적 변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서울을 기습 공격해 한국 이이를 방어하려면 인간보다 대응 속도가 빠른 AI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받았다.

마이클 오한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



원은 북한이 서울을 향해 군 항공기 100대를 출격시킬 경우, 한국이 AI가 통제하는 로봇을 이용해 항공기를 전부 격추해 북한 조종사 100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가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AI에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맡겨도 되는냐고 물었다.

올트먼 CEO는 “항공기가 한국에 접근하고 있고 인간이 의사 결정에 관여할 시간이 없을 때 AI가 요격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정말 확실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확실해야 하나? 예상되는 인명 피해는? (이러한) 회색지대의 어느 지점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따져봐야 할) 질문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난 누군가 'AI가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누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때처럼 정말 빠르게 행동해야 할 때 AI를 사용하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며 “이런 내용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오픈AI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이 자리에서 중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지정학적 경쟁이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는 매우 분명히 미국과 우리 동맹의 편”이라며 “이 기술이 인류 전체에 득이 되기를 원하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지도부가 있는 특정 국가에 살게 된 사람들에게만 득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MLB2501870; MD.2501870; NC.L-219005; VA.MC-7782; TX.2501870; PA.106923; SC.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아라조물) 웨일리노레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 시가전 공포 속 휴전협상 진통 지속

### 미국 '레드라인 넘지말라' 이스라엘에 무기 수송 보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국경검문소를 장악, 지상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을 재개하면서 가자 전쟁이 또다시 중대 국면을 맞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 하에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재개했다.

하마스는 전날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했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군 전면 철수와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같이 이스라엘이 사전에 양해하지 않은 방안들이 담겨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하며 압박을 가하자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인질 석방은 없다고 경고하는 등 양측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재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전날 협상단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가자지구

[AFP=연합뉴스]

"하마스 제안이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를 충족하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은 "영구적 휴전"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휴전 제안은 라파 진입 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 계속된다면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카이로에 파견해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을 막구 조율하기로 했다. 번스 국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가자 민간인 보호책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검문소를 장악했다.

이스라엘 남부에서 가자지구로 진입할 수 있는 케렘 샬롬 국경검문소까지 폐쇄했다가 구조물자를 막지 말라는 국제사회 압박에 8일 재개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주요 통로를 확보한 것이다. 그만큼 라파에는 민간인의 대량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시가전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경검문소 장악이 대규모 라파 공세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헤일리, 인디애나 경선서 20% 넘겨

대선(11월5일) 레이스를 접은 니키 헤일리(사진) 전 유엔 대사가 이미 승자(트럼프)가 결정된 공화당 경선에서 잇달아 무시 못할 득표율을 기록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인디애나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3%(46만 1천여 표)를 득표했지만 헤일리의 득표율이 21.7%(12만 8천여 표)에 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헤일리는 3월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가 확실해지자 후보직에서 사퇴했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나 경과했음에도 20% 넘는 표가 그에게 쏟아진 것이다.

인디애나주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포인트 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긴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더욱 눈길을 끈다.

인디애나주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부통령을 지냈으나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해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연방 하원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텃밭'이기도 하다.

헤일리는 지난달 2일 위스콘신주 프라이머리에서 13%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지난달 23일 펜실베이니아주 프라이머리에서는 17%를 가져갔다.

더 이상 헤일리는 후보가 아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후보직을 거머쥐는 데 필요한 대의원수를 확보한 사실을 공화당원들이 모르지 않을 상황에서 사퇴한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 추이를 보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7대 경합주 중에서도 특별히 더 치열한 격전지로 꼽힌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고, 후보 사퇴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결국 헤일리를 지지했던, 상대적으로 성향의 공화당원 다수가 헤일리 사퇴 후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매치를 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 양상인 대선 승리를 위해 헤일리 전 대사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국방장관 "이스라엘에 고폭발성 탄약 1회분 배송 보류"

로이드 오스틴(사진) 국방장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일부 무기 수송 보류를 사실상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8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있는 민간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라파에서의 중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우리는 상황을

평가했고, 고폭발성 탄약(high payload munitions) 1회분 배송을 일시 중단(pause)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 배송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AP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로 가는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선적이 일시 중단된 폭탄의 규모는 2천파운드 폭탄 1천800개와 500파운드 폭탄 1천700여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라파 지상전에 대한 이견 속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지만 책임있는 미국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 ▶ 1면 '신약'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알파폴드2는 구조 생물학 분야에 혁신을 가져온 획기적인 기술로, 현재까지 2만 번 이상 인용되며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의 중요한 연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구글 답마인드는 항상 AI를 활용해 생물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으며, 알파폴드3는 이러한 노력의 가장 최신 단계"라고 강조했다.

알파폴드3는 입력된 분자 리스트를 통해 3차원(3D) 구조를 생성한 뒤 모든

분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준다. 단백질, DNA, 리보핵산(RNA)과 같은 큰 생체 분자뿐만 아니라 리간드(ligand)라고 하는 작은 분자도 모델링하고, 세포의 건강한 기능을 파괴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자의 화학적 변형도 모델링할 수 있다.

논문은 알파폴드3가 거의 모든 생체 분자 유형의 구조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고, 생체 구성 분자들의 광범위하고 정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생물학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조명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답마인드는 알파폴드3가 앞으로 신약 개발과 질병 치료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신약 개발 자회사인 아이소모픽 랩스는 알파폴드3를 이용해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구글 답마인드는 이날 이와 함께 비영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 플랫폼인 '알파폴드 서버(AlphaFold Server)'도 함께 발표했다.

# 우버 1분기 기대 밑돈 총예약에 주가 급락세

미국의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1분기 총예약 실적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버 주가는 8일 개장 초 급락했다.



우버는 이날 발표한 실적보고서에서 1분기 총예약액이 377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늘어난 수치지만, 회사 측이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 제시한 전망치(380억달러)를 밑돌았다.

매출은 101억3천만 달러로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01억1천만달러)를 약간 웃돌았다.

프라산트 메한드라-라자 우버 최고 재무책임자(CFO)는 총예약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배경에 대해 "라틴 아메리카의 차량호출 활동이 약해졌고, 부활절과 라마단 기간이 일찍 시작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우버 주가는 개

장 초 5%대 하락 거래 중이다.

팬데믹 이후 외출이 늘어나고 재택근무자들이 회사로 돌아오면서 모빌리티 부분의 수익성이 크게 회복된 바 있다.

음식 배달 사업 역시 팬데믹 기간의 높은 성장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면서 우버 주가는 지난해 들어 2배 수준으로 오른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사상 첫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다.

# 메릴랜드 프린스 한인회 K School 개강

장소: 하늘비전교회  
Heavenly Vision Community Church  
7565 Teague Rd., Hanover, MD 21076

- 정기등록 2024년 5월 6일(월)~6월 2일(일)
- 등록대상 초·중·고교·성인 (수시등록가능)
- 수업기간 12주
- 수강료 \$100
- 문의 443-994-4304

### 한국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 수업시작: 2024년 6월 9일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기타 등록  
방법  
○ 수강료  
등록

### 골프

- 강사: 유승규 프로
- 수강료: 10번에 \$300



### 우쿨렐레

- 수업시작: 2024년 5월 28일 부터
- 수업료: 매월 \$50
- 수업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12시 15분



메릴랜드 프린스한인회 K School 학장 이옥희 / 고문변호사 김용용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Y 9th - MAY 16th, 2024**



**HAIO**

**Milk Drink**  
**해오름 우유**

BANANA/COFFEE/STRAWBERRY  
 6.42 FL OZ X 6 EA/PKG

~~REG. \$6.99/EACH~~

**2 \$ 8.99**  
 FOR



**Get 2 Flavors in 1**

**Korean  
 Marinated Crabs**

**한국산  
 간장게장 & 양념게장**

SOY SAUCE & SPICY/2.75 LB

~~REG. \$19.99~~

**\$12.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 위기의 보수, 무너지는 중산층 복원에 당력 모아야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192대 108이라는 충격적 숫자만이 아니다. 여소야대와 레임덕 우려보다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건, 보수 정당의 3연속(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났다. 123석을 얻은 민주당과는 1석 차이였지만 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까지 합친 진보 진영은 모두 167석에 달해 정국을 단숨에 거야(巨野) 구도로 탈바꿈시켰다. 이듬해 박 대통령 탄핵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분명히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122석이 걸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민주당(82석)이 약진하며 새누리당은 3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수도권=보수 정당의 무덤’이 굳어진 건 이때부터다.

1997년 대선에서 DJ(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사상 처음 진보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당시 정치 지형은 ‘보수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원초 보수 김종필(JP)·박태준(TJ)까지 끌어들이던 DJT연합으로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보수 정당 후보(이회창)와의 격차는 1.98%에 불과했다. 보수 정당에서 탈당해 제3후보로 나선 이인제(국민신당) 후보가 19.2%를 득표한 걸 감안하면 보수의 절대 우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200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2012년) 등 진보 진영의 화두는 단일화와 통합에 쏠렸다. 그러나 2017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지형이 180도 바뀌었다. 이젠 ‘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중도까지 아우르는 통합과 단일화는 보수의 의제가 됐다. 2020년 총선에서 보수 정당은 당명까지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잦았던 힘까지 더해 보수 대통령을 성사시켰지만 결과는 대패였다.(미래통합당 103석, 민주당 180석)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2022년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정권을 찾아오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였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었다면 이마저 불가능했을지 모를 일이다.

## 보수 여성 약해지고 진보는 두터워져

지난 10여년 간의 전국 단위 선거를 분석해 보면 ‘보수 40·중도 20·진보 40’의 정치 지형이 붕괴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표밭에서 보수의 여성은 약해지고 진보는 두터워지고 있다. 선거의 승패는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결정적이긴 하다. 하지만 “참패했지만 4년 전보다 5석이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로 줄었다. 뚜벅뚜벅 가랑비 전략으로 3%만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긴다”(여의도연구원장 출신 의원)는 정신승리로는 다음 선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인식은 청년세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연령대별 인구정치학적 지형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사회·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보수 정치의 세출발을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40대 전략 안 세우고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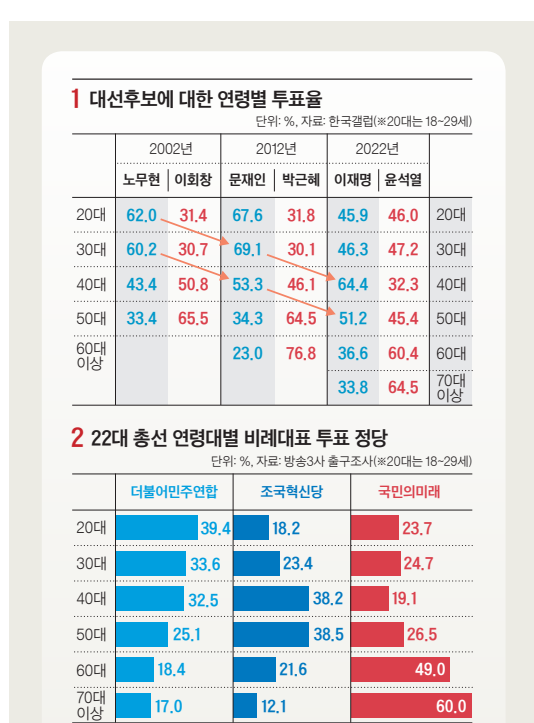
역대 보수정권, 중산층 육성 성과  
박정희의 의료보험은 진보 정책  
지금의 보수는 철학·비전 부재  
청년문제 해결로 실력 입증하길

‘청년=진보, 노인=보수’라는 통념도 깨졌다. <표1>의 대선 후보에 대한 연령별 투표율 추이를 보자. 2002년 진보(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20, 30대가 20년 후 40, 50대가 됐지만 2022년 대선 때 여전히 진보(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50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진보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방송 3사의 비례대표 투표 정당 출구조사에 따르면 40대는 70.7%(더불어민주연합 32.5%, 조국혁신당 38.2%)가, 50대는 63.6%(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38.5%)가 진보 정당을 지지했다. 인생의 일정한 시기에 동일하고 중대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일생 동안 동질한 사상과 정치의식으로 뭉쳐 집단화하는 ‘코호트 효과’의 전형이다. 전쟁과 기아를 경험한 노년 세대가 강한 보수 성향을 보이고, 민주화를 경험한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가 50, 60대가 돼서도 진보 성향을 고수하는 것도 비슷한 현상이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20대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와 비교해 32% 대 62%였다. 당시 20대였던 현재 40대의 지역 득표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63%로 22년 전과 똑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지난 20여년간 가장 취약한 세대였던 이들 40대에 대한 정밀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최대 이슈를 방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보수 정당 지지층도 쪼그라들고 있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는 견고한 반면, 영남의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는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면서 영-호남 지역 대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파워를 행사해 온 영남 중심의 보수 정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지지 기반 중산층 붕괴에 위기 못 느껴

보수 정당이 50년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건 독재 때문이 아니라 두터운 중산층 덕분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균열하면서 보수 정당 장기 집권도 종지부를 찍었다. 한 때 70%에 육박할 정도였던 중산층 비중이 1997년(64.8%) 이후 8년간 5.3% 감소했고, 하위층은



믿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보수는 철학도, 대안도, 비전 제시도 없다. 선거 때면 밖에서 반짝 셸럽들을 영입해야 할 정도로 인재난이다. 그러나 진보를 추종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무능한 보수에 실망해 진보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 영국 보수 정당, 이념 집착 않고 변화 수용

거대 지주와 귀족의 정당이던 영국 보수 정당은 대영제국의 몰락과 대중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등장한 지금까지도 300년 넘게 지배적 정당으로 장수해 왔다.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의 저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고루한 원칙이나 교조적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에 자신을 맞춰 가는 유연함과 적응력 때문”이라고 비결을 분석했다. 강 교수는 “자유당·노동당이 추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용·모방했으며, 이전 정부가 큰 정치적 논란 뒤에 실행한 정책을 보수 정당이 집권해서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며 “이런 유연성 덕분에 대토지 소유계급과 귀족들의 정당이 대영제국의 정당, 상공업자의 정당, 복지국가의 정당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급의 생활·복지 개선 같은 사회 개혁이 요구될 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과감히 요구를 수용해가며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몰락을 막고 집권 기반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은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 교훈으로 새겨야 할 대목이다.

## 청년 비전 제시, 유능한 보수로 변화야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20대(0.1%포인트 격차), 30대(0.9%포인트 격차)에서 근소한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표1). 이번 4·10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진보정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에 몰표를 준 30·40대에 비해 20·30대의 진보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2). 허진재 한국갤럽 부사장은 “2022년 대선의 승패를 가른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란을 절실하게 느낀 2030세대가 진보 후보에게 몰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주택 자가보유 비율은 각각 10%, 40%로 전 연령층(40대 73%, 50대 80%, 60대 81%)에서 가장 낮다.

전쟁·민주화 운동 같은 사회적 격변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세대는 ▶취업·부동산·복지 같은 현실적 이슈에 민감하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안보관을 갖고 있으며 ▶실용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인구정치학적 위기에 처한 보수는 청년세대에서 희망을 찾기 바란다. 청년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대안과 비전 제시 경쟁을 통해 지도자를 뽑는 대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앞선 보수 지도자들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개혁 정책으로 지지층을 확보했듯이 ‘유능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 메디케어 최초 신청부터 플랜 등록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사전 연락 바랍니다.)  
8300 Boone Blvd. #500, Vienna, VA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1959년생이신 분, 새로 이주하신 분,  
메디케이드 해당자, 직장보험,  
복잡해 보이는 메디케어,  
쉽고 간결하게 알려 드립니다.

저도 메디케어 해당자입니다.  
제 보험을 찾는 마음으로 도와드립니다.

**염은호 종합 보험**  
**571-232-5022**  
8300 Boone Blvd #500, Vienna, VA 22182





www.koreanbellgarden.com



평화와 화합의 종은 높이 2.18m, 직경 1.26m, 중량 3ton으로 버지니아의 상징물과 한국 전통 문양의 독창적으로 새겨진 세계 유일의 한국종으로, 한국 최고 종장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이신 원광식 선생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종은 그 소리가 은은하고 아름다워, 예로부터 인간에게 정기를 불어 넣어 주고 듣는 사람에게 행운과 번영, 우정, 자유, 평화를 전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12주년 코리안벨 가든 (일명 : 평화와 화합의 종각) 완공기념 및 한국문화 축제

워싱턴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모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협조로 2012년도에 완공 조성된 미국 최초의 한국 정원, "코리안벨가든"이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귀한 마음으로 마련된 코리안벨가든이 올해 1월과 5월호에 가장 권위 있는 "Washington Magazine Guide"에 코리안벨가든은 숨은 보물과 같은 장소 그리고 평화의 종각과 함께 한국 정원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으로 새로운 시공간으로 떠나는 여행지로 추천되었습니다.

북버지니아 공원국에 MOU를 통해 약정한 영구관리기금도 현재 \$200,000중 \$160,300 (as of May 2023) 지불하였습니다. "코리안벨가든"이 더욱 더 아름답게 잘 보존되어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관리기금 모금을 위하여 화강암 의자를 Limited 2개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우리 워싱턴의 자랑이요, 마음의 고향이며 쉼터인 귀한 장소에 자자손손 이민의 선구자로서의 모범을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업은 하느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 주셨음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 귀한 행사에 동참하시고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년 멤버십(Annual Membership) \$200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일시** 2024년 5월 18일(토) 오전 11시 (우천시: Visitor Center/방문 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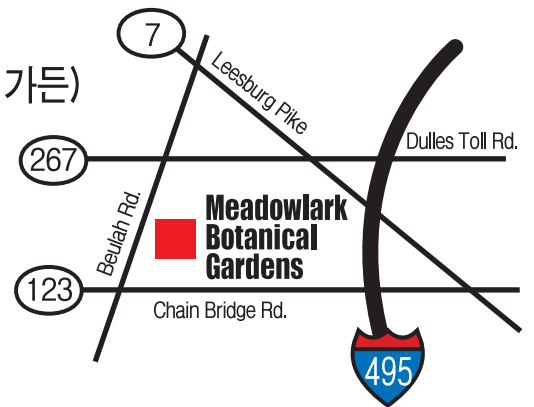
**장소** Meadowlark Botanical Gardens (메도우락 식물공원-코리안 벨 가든)  
9750 Meadowlark Gardens Court, Vienna, VA 22182

**문의** 703-424-1111(김옥순 사무총장), 703-346-1925(윤희균 행사준비 고문)  
703-593-5447 \*자원 봉사하실분은 연락주세요.

\*미납하신 건립위원회에서는 약정기부금을 성의껏 납부해 주시면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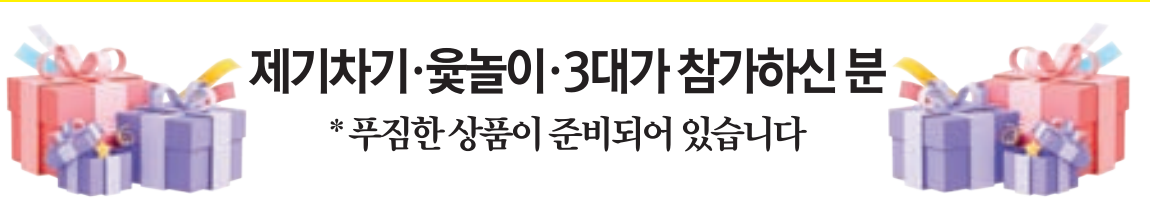
\*\* 행사날 코리안 벨 가든 영구관리기금을 위하여 "노트카드(\$5)"를 판매합니다. 항상 메도우락식물공원내의 Gift Shop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구입하시는 만큼 북버지니아공원국에서 관리하는 코리안 벨 가든 영구관리기금으로 기부됩니다.

\*\* 기부금을 보내주시실 분은 : Pay to the "KACC" / 주소: P.O. Box 198, Annandale, VA 22003



**주/요/행/사** \* 행사당일은 무료 입장입니다. 피크닉 의자, 소풍 돗자리 가지고 오셔도 됨.

- ◆ 워싱턴 글로리아 하프단 (단장 김영란외 15명)
- ◆ 한국 민속 공연 워싱턴 한국 무용단 / 하상한국학교 (교장: 이정렬)
- ◆ 3대가 함께하는 전통놀이 윷놀이 및 제기차기 (한팀 4명) \*특별협찬: 미주한인노인봉사회
- ◆ 신사임당상 / 특별공로상
- ◆ 한국 전통 민화 체험 및 종이 학 만들기 (정정순 / 한국전통 민화협회 워싱턴 지부장)
- ◆ 태권도 ▷ 도한진 타이거 아이즈 태권도 ▷ 연락처: 571-274-2565
- ◆ 평화와 화합의 종 타종식
- ◆ 한식체험
- ◆ 왕과 왕비의 행렬
- ◆ 한국 전통 혼례복 체험



## DONATION FOR KACC

\* 세금공제 혜택이 됩니다.

- KOREAN BELL GARDEN (\$10,000+)
- PLATINUM BELL (\$5,000+)
- GOLD BELL (\$2,500+)
- SILVER BELL (\$1,000+)
- BRONZE BELL (\$500+)
- CORP. DONATION (\$1,000+)
- ANNUAL MEMBERSHIP (\$200+ 기부금)

● Pay to order : KACC  
P.O.BOX 198 Annandale, VA 22003

● 문의전화 : 703-593-5447

\*미납중인 건립회원들은 약정하신 기부금을 납부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특별후원** 주미한국대사관, 재외동포재단, 경기도, 페어팩스카운티, ㉠ 워싱턴 중앙일보 외 각 언론사

**단체 및 기업체 후원**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김태진 베네딕토 신부), 이상남 박사, 워싱턴가정상담소,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대한민국 미동부재향군인회,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협회, 워싱턴평통(린다 한 회장), 글로벌어린이재단, Potomac Woman's Club, 이순신미주교육본부(김대영 이사장), 광복회워싱턴지회(김은 회장), 워싱턴한인복지센터, 한미애국총연합회, 워싱턴 시니어 축구팀, 숙명여자대학교 워싱턴 동문회(최환숙 고문 / 김영란 회장), 한강, 그레이스 옥 미용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신비로운장미(박옥희), 케빈 윤(WKTV 대표), 토니 김, 제이슨 문, 임마누엘미용실, 이승만박사기념연구교육재단(양동자 박사), 강지현회계사, 한미여성재단, 워싱턴여성회(김경숙 회장), 장미훈수방, CNC Printing, 미주가요동호회(이재성 회장), 한스여행사, 손목자 이사장, 윤희균 고문, 박정호 & 박헬렌, 신현기, 한문성 & 한경옥, Tony Kim(American Auto Imports)

**주최 :** 한미문화재단 / 워싱턴지역한국학교협의회  
워싱턴버지니아한인통합노인회 (회장 우태창)  
미주한인노인봉사회  
워싱턴심포니오케스트라 (이경신)

**주관 :** 한미문화재단 북버지니아공원국 (NOVA)  
특별 건립 고문위원 : 안창호 박사, 이덕선 회장, 김갑년 회장, 정규섭 (전)대사, 전영남 회장, 박윤수 박사, 이내원 회장, 이복신 회장, 윤희균 회장, 우태창 회장, 송제경 회장, 박해찬 변호사

**한미문화재단 (Korean American Cultural Committee) 대표 이정화**



# “구직·이사 ... 편히 물어볼 일상속 국민멘토 늘어나야”

지원센터·온라인 씬터서 자조모임 “방향 그쳐” “집 구하는데 도움받아” 자립청년 수시로 모여 서로 도와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가족 형성해야

지난달 4일 오후 1시쯤 경남 창원 시 소재 굿네이버스 센터에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청년) 3명이 모여

다. 경상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인 이곳에서 서로 생각하는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다. 한 자립청년이 가정위탁 출신 이동휘(24가명)씨를 향해 “요즘도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고민 중이냐”고 물었다. 동휘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센터는 여행·낚시·요

리·영화·제빵 등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자립청년들의 모임인 ‘자조(自助)모임’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 자립청년 162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로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작은 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동휘씨는 지난해 4월 이곳에 처음 나왔다. 어릴 때 조부모와 함께 자란 그는 보호자가 있다고 여겼다. 정부에서 말하는 자립청년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센터 전담 요원이 가정위탁 출신 자립청년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동휘씨를 만났다. 센터 관계자는 “보육원 출신이 아니라 친척 손에 맡겨져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자립청년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수채화를 전공했던 그는 과 1등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을 만큼 실력이 출중했다.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경력도 쌓았다. 그러나 3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든 의욕을 잃었다. 방황하던 그는 이 모임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 그는 “상담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수 있었다”며 “하루 먹고사는 데 급급했는데 시야가 넓어지며 ‘나도 낭만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글 쓰는 순서

- 상 통계서도 외면받은 죽음
- 중 자립 등쳐먹는 하이에나들
- 하 네트워크가 희망이다

보육원 출신 자립청년 방성혁(26가명)씨는 매주 화요일 축구 모임에 나간다. 함께 땀 흘리며 친목도 쌓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도 있다. 방씨는 “복지 서비스 대부분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보니 모르면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민간단체들도 자립청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면접 교육과 취업 성공 시 수당 등을 지급하고, 아름다운가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긴급생계비와 교육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2020년부터 자립청년 대상 주택 무이자 대출도 지원 중이다.

자립청년을 위한 씬터는 온라인에서도 생기고 있다. 익명이 보장된 오픈 채팅방에서는 하루에 수십 개씩 고민 글이 올라온다. 구직 시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써야 할지, 기초생활수급비는 어떻게 받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다. 자립청년인 손자영 아름다운재단 캠페이너는 “자립 초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집 구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고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립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의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일상생활 속 공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국민멘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부모 같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아름다운재단 변화혁신국

국장은 “정부가 자립전담기관을 만든 건 어른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인데 지원 정책은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영국은 자립 요원이 청년의 집에 방문하고, 이사를 했을 땐 새 거주지가 관할인지,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까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네트워크도 있다. 유한대 사회복지학과 윤도현(22)씨는 자립청년과 후원자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역시 18년간 보육원에서 성장한 자립청년이다. 2년 전 자립활동가로 일하면서 자립청년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연결할 방법을 떠올렸다. 크리스마스에 일대일로 후원자를 배정해 주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모임 솔(SoL: Shine on Light)을 만들었다.

SoL이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선 하루에 4~5번씩 단체 음성통화를 한다. 문자로는 답을 수 없는 기분이나 감정을 함께 실시간으로 나누자는 취지에서다. 통화가 시작되면 익명으로 10~30분가량 고민을 나누고 수도도 편다. 윤씨는 “자립 전 시절 등에서 보화를 받을 때부터 멘토와 관계를 맺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협회를 운영하는 주우진(29) 대표는 2021년 4월 협회를 만들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사람에 대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사회에서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당사자들은 결국 자신의 출신과 환경을 거부하거나 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정세화·김서원·박중서 기자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자조모임 대화방**  
※자립준비청년 80여 명 모인 SNS 단체 채팅방 내용 재구성

**A** 이사 잔금일이 임박했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B** 밥도 먹어야 하고 집주인이 못 오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도 처음 집 계약할 때 어찌나 떨리던지...

**A** 감사합니다. 다행히 문제없는 집이었어요. 덕분에 계약 잘 마무리했습니다.

**A** 주거급여가 끊긴다고 연락받았어요. 아버지의 금융재산 때문에 공동 재산소득세가 올라서네요.

**B** 부모와 연금도 안 받으면 6개월 이상 지났으면 가정해제로 분류되는 것 아니에요?

**C** 씬터 입소 증명서, 통장 내역 등으로 원가정과 연결고리가 없다는 걸 소명하면 됐던 것 같아요.



1. 지난달 굿네이버스 경남지부 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모였다. 2. 자립준비청년 이동휘씨가 자신이 그린 웹툰을 보여주고 있다. 3. 자립준비청년협회 주최인 대표(왼쪽 셋째), 정세화·송봉근 기자, (사진 자립준비청년협회 홈페이지)

**전문가 5인이 말하는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것**  
깊은 신뢰 형성이 최우선. 전담기관 상담 인력 충원해야  
김성식 아름다운재단 변화혁신국 국장  
노인원근·교육사로 이어지기 전에 청년기부터 밀착 관리해야  
변규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단장  
시·도보다 더 접근성 좋은 시·군·구에 전담 인력 배치돼야  
이성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민간차원의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필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복지부 산하 시설외소에 한정된 지원. 여가부 관광 씬터까지 확대해야  
조소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



서울에서는 매년 36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다.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 공간을 떠난 서울 청년은 현재 1720여 명으로 추정된다. 8월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이 홀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자립정착금(2000만원)·자립수당(월 50만원·5년)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이들에게 교통신비(월 6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서울 용산구에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 전용 공간인 ‘영플러스 서울’을 개소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도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을 제공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세탁기가습기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골프 캐디 양성 과정이나 ‘파이썬’ 등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이 단순히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막상 사회에 나와서 자립하려면 자립 이전 단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수경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박

서울시, 정착금 2000만원 등 지원  
진로·정서 등 자립 준비 제도 대부분  
매해 서울서만 청년 360여명 자립

시는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준비계획은 자립전담요원 인력이 부족하고, 소그룹·워크숍 형태의 다양한 교육 형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심리·정서·진로 프로그램을 위한 멘토풀을 넓히고 문화·힐링·경제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립준비청년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자립준비청년이 예술가로 진로를 택하고 싶으면 미술용품 구매비나 입시 미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막상 자립하면 가장 부담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서울의 살인적인 주거비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보증

금 1000만원인 서울 10개 지역 원룸(전용 33㎡ 이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 관리비는 7만2000원이었다. 현재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주거공간은 꿈나눔하우스(22개소·64명), 자립지원주택(16명), 자립생활관(3개소·89명), 청년매입임대주택(96명)이 전부다. 매년 360여 명이 자립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대해 박미영 서울시 아동보호팀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중 50호씩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철 기자

##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 주거 지원 받는 이는 265명뿐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MARKET**  
INTERNATIONAL FOOD



**3 YEARS  
ANNIVERSARY**



창립 3주년 기념 고객 감사

**달콤 세일**  
**달콤**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고객님의 성원에 힘차게 달려 온 지난 3년!  
저희 케이마켓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개업 3주년 기념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MARKET**  
INTERNATIONAL FOOD



4239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www.kmarketusa.com | 703-712-7089



# '용산 소통령' 될 기회 국민공감부터 얻어야

(소통하는 대통령)

## 윤석열 정부 2주년 평가 말말말

<p>“독단적 이미지 바뀌야”</p>  <p>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p>	<p>“편 가르기식 내로남불 국정운영”</p>  <p>금태섭 전 의원</p>	<p>“기업 자율성 보장, 규제 최소화, 경제 선방했다”</p>  <p>김형오 전 국회의장</p>	<p>“2년째 남 탓, 안보·경제 낙제점”</p>  <p>문희상 전 국회의장</p>	<p>“국민통합 노력 부족”</p>  <p>이석연 전 법제처장</p>	<p>“정치가 실종된 2년”</p>  <p>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p>	<p>“재정 건전성 밀어붙인 것은 높이 평가”</p>  <p>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p>	<p>“의대 정원 확대, 사교육 개혁 방향은 맞다”</p>  <p>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p>	<p>“우방국 관계 개선은 성과”</p>  <p>신각수 전 주일대사</p>	<p>“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글로벌 스탠스 확립”</p>  <p>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p>
---	---	---	---	---	--	---	--	--	--

### 원로·전문가·캠프출신이 본 윤정부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주문 외교안보 한일관계 개선엔 호평 북·중·러 연대엔 대책부족 지적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집무실에서 20분 정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다. 이때 저출산 대책과 함께 지난 2년간 국정 성과와 남은 3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한 시간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기자회견에선 해병대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제2부속 실 설치 등 민감한 현안에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

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만큼은 소통과 국정 기초, 야당과의 협치 등 모든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다시 실망감을 준다면 국민은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대선 캠프 출신), 김형오·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원로), 신각수 전 주일대사와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외교안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경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정치평론) 등 전문가 10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을 되돌아봤다. 국내 정치에선 소통·통합 미흡 등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긍정 평가가 높았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임기 초 6·1 지방선거 완성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53%(취임 4주 차 한국갤럽)까지 치솟았던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이후 하향세였다. 2022년 잦은 인사 시비와 ‘이준석 내보 총질’ 텔레

그램 메시지(7월 26일), 이태원 참사(10월 29일),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11월 21일) 등 주요 고비 때마다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문제가 됐다.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2022년 12월 1일), 간호법 제정안(2023년 5월 16일) 등의 거야 강행처리에 대한 맞대응식 거부권 행사도 불통 이미지를 쌓이게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독단적 이미지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내 편 네 편을 나눠 싸우는 내로남불식 국정 운영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정치 원로들은 “전임 정부 탓, 국회 탓을 2년째 하고 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 “국민통합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공감 없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이석연 전 법제처장)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국민 실덕 등 국정 운영 스타일이 문제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컷 일하고 뺨맞는 격이 됐다”는 게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평가다. 중소기업협회장 출신인 이정희 교수는 “정책 방향은 맞는데, 일도양단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쉬웠다”고 했다. 국제경

제학회장을 지낸 강성진 교수는 “뚝심 있게 재정건전성 기초를 밀어붙인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전선이 너무 확대돼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노사 법치’를 강조하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 고용 세습 근절, 불법 쟁의 행위 엄단 등을 높이 샀다. 다만 “여소야대의 벽을 넘기 위한 협치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에서 가치 연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년 동안 8차례 13개국을 순방하며 이를 현실화했다. 미국 국민 방문 중 이뤄진 워싱턴 선언(2023년 4월)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참석 등 숨가쁘게 국제 외교 무대를 두드렸다. 특히 방위산업 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찾은 폴란드에서 전격적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기도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일 관계 개선, 한·미 동맹 및 확장억지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대일본 관계 정상화는 높게 평가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박인휘 교수는 “북·중·러 간 연대에 대한 준비와 고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느닷없이 ‘무찌르자 오랑캐’ 식

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을 맞이했다”고 했다.

당면과제는 국민적 지지 회복과 여야 관계 재설정이다. 문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믿음이 가도록 국정 운영을 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골프에 비유하며 “드라이브를 멀리 치는 것보다는 어프로치가 중요하다. 국민감정을 고려해 소통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법으로는 인적 쇄신·협치 등이 언급됐다. 금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 기초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인사”라며 “단순히 야당 출신 인사를 쓰라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정치가 실종된 지난 2년이었던”며 국회의와의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일 병원 치료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공지했다. 이대표는 입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냈다.

현일훈·김기정·박태인 기자

## 대통령, 저출생대응부 신설 밝힌다... 초대 부총리 겸 장관엔 주형환 거론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 격상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밝힌다.

총선 패배 이후 내놓는 첫 번째 대형 정책으로,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 정식 부처인 저출생위기대응부로 격상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대 저출생위기대응부 부총리 겸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국가 생존이 위협받을 만큼 저출산 문제가 급박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으로 인구부(국민의힘)와 인구위기대응부(더불어민주당)라는 이름의 인구총괄부처 신설을 각각 공약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부처 신설을 위해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

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함께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

다. 2016년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 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함께 출산율이 0.7 이하로 추락할 것인 전망도 나온다.

역대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단기적 대책에 매몰됐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한다.

현일훈·박태인 기자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소중한 가족 건강  
**우메켄 덕 좀 보세요**

우메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분들께 최고의 제품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6월 2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이벤트 1

우메켄 전제품 중  
 동일제품 2개 구입 시

**20**

**% 할인**

이벤트 2

발효 미네랄 L-칼슘  
 구입 시



Free Gift

**L-칼슘(2달분)  
 무료 증정**

• 이벤트 1, 2 중복 적용 안됨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법으로 민생지원금” ... 입법으로 행정권 휘두르겠다는 거야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대상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했을 때 당 정책위원회 등에서 처분적 법률 효과를 통해 법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 없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뜻한다. 국회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법률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일종의 우회로다.

이재명 “처분적 법률 검토” 주문 뒤 당에선 신용사면·횡재세까지 언급

민주당·조국당은 ‘검수완박’ 예고 “검찰 수사권 제한 6개월 내 마무리”

민주당에선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 용어를 꺼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신용사면 이런 건 정부가 안 하니, 입법으로 해도 될 것 같다”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민생회복 지원금 이외에 이 대표가 언급한 신용사면, 횡재세 등을 처분적 법률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입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엔 22대 총선 압승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민심은 입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에는 위험 논란이 따라붙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

법권은 국회에 속한다”(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등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 이런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어서다.

당장 민주당이 입법을 공언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건 행정부의 역할인데 법률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 권한 침해”라고 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이나 횡재세의 경우 이유와 대상의 범위가 명백해야 하는데, 그 논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서원·정용환·김정재 기자

## 중국선 한국인도 불시에 휴대전화 검문 당할 수 있다

중국, 전자기기 불심검문 법제화 7월1일부터 외국인도 예외 없어 상하이 등 일부 공항선 이미 시행 “어떤 사진 저장했는지 검문해”

오는 7월부터 중국 안보기관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심검문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규정이 발표됐다. 상하이·선전 등 일부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이미 불심검문이 시행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와 중국 여행자나 체류 외국인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SNS 계정을 통해 천이신(陳一新) 국가안전부장(장관)이 ‘국가안보기관의 행

정 집행 절차 규정’과 ‘행사시간 처리 규정’이 서명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해당 규정 40조는 ‘국가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개인 및 조직의 전자장비·설비 및 관련 절차 및 도구를 검사할 때에는 해당 시(市)급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집행관이 경찰증 혹은 형사증을 제시한 뒤 현장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긴급 상황 규정이 불분명해 사실상 안보기관 판단에 따라 일반인의 휴대전화·노트북에 저장된 메시지 내용, 사진, 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인 장(張)씨는 지난 주말 푸젠(福建)성의 푸톈(福田) 출입국사무소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세관원에게 검문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RFA에 전했다. 그는 “선전(深圳) 세관을 지날 때도 두 명의 세관원이 한 여행객의 휴대전화를 검문하는 것을 보았다”며 “최근 항저우와 난징 공항에서도 휴대전화에 어떤 사진을 저장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민감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천다오인(陳道銀) 전 상하이 정법대 교수는 “방첩기관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모든 사회 조직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간첩 적발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어디에서나 국가안전부의 존재를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의장대 사열하는 시진핑 7일(현지시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이날은 니토의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지난해 7월 신방첩법(간첩방지법 수정안)을 시행한 뒤 외국 투자 감소 우려에도 스파이 적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천이신 부장은 지난달 15일 당 이론지 『추스(求是)』 기고문에서 ‘신오반(新五反) 투쟁’을 촉구했다. ‘신오반 투쟁’은 체제 전복, 해외

패권, 국가 분열, 국내·외 테러, 스파이 방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일컫는 신조어다. 일각에서는 1951~52년 한국전쟁 당시 부패·남비·관료주의의 반대를 내세워 전국적으로 전개했던 ‘삼반(三反) 운동’의 재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 방사청,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삭감 수용 ... 기술 이전도 축소

인니, 1조6000억→6000억 요구 방사청 “전투기 전력화 집중할 것”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밀 유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개발 분담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분담금 삭감과 기술 유출 시도는 별개 문제라면서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가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

까지 6000억원을 내는 것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고, 제안대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당초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전체 개발 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4000억원을 냈고, 2000억원만 더 내겠다고 최근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측의 책임 미이행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에 대해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체계 개발 시기와 전력화 압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과 의사 결정 지연이 지속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담금을 더 받겠다고 시간을 끄느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전력화에 집중하겠

다는 취지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속보다 1조원을 덜 내기로 했지만, 실제 공백 비용은 5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전체 개발비가 8조1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연구진의 노력으로 이뤄낸 비용 절감 혜택을 인도네시아가 보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 측에서 재정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기술을 덜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가 KF-21의 핵심 기술을 이미 빼돌렸다면 이제 와서 이전받는 기술의 규모를 줄이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실제 경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지난 1월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사건을 놓고 기술 유출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시스템적으로 e메일 등이 통제돼 (빠져나간 내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적발된 USB에는 무단 촬영한 설계도면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보고서 등 6600건의 자료가 담겼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범행 전 흥기 준비했다... 계획살인 시인 구속

### 여자친구 살해 최씨 "유족에 죄송" 일반고 출신, 학원선 수능멘토 활동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가 계획범죄를 시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발적 범죄는 아니다. 범행을 오랫동안 계획한 건 아니지만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최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부

계를 두고 수사 중이다. 범원은 이날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신원동 10길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5-1, 5-2, 5-3, 5-4, 5-5, 5-6, 5-7, 5-8, 5-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6-1, 6-2, 6-3, 6-4, 6-5, 6-6, 6-7, 6-8, 6-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8-1, 8-2, 8-3, 8-4, 8-5, 8-6, 8-7, 8-8, 8-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2024-1-1, 2024-1-2, 2024-1-3, 2024-1-4, 2024-1-5, 2024-1-6, 2024-1-7, 2024-1-8, 2024-1-9, 2024-1-10, 2024-1-11, 2024-1-12, 2024-1-13, 2024-1-14, 2024-1-15, 2024-1-16, 2024-1-17, 2024-1-18, 2024-1-19, 2024-1-20, 2024-1-21, 2024-1-22, 2024-1-23, 2024-1-24, 2024-1-25, 2024-1-26, 2024-1-27, 2024-1-28, 2024-1-29, 2024-1-30, 2024-1-31, 2024-2-1, 2024-2-2, 2024-2-3, 2024-2-4, 2024-2-5, 2024-2-6, 2024-2-7, 2024-2-8, 2024-2-9, 2024-2-10, 2024-2-11, 2024-2-12, 2024-2-13, 2024-2-14, 2024-2-15, 2024-2-16, 2024-2-17, 2024-2-18, 2024-2-19, 2024-2-20, 2024-2-21, 2024-2-22, 2024-2-23, 2024-2-24, 2024-2-25, 2024-2-26, 2024-2-27, 2024-2-28, 2024-2-29, 2024-2-30, 2024-3-1, 2024-3-2, 2024-3-3, 2024-3-4, 2024-3-5, 2024-3-6, 2024-3-7, 2024-3-8, 2024-3-9, 2024-3-10, 2024-3-11, 2024-3-12, 2024-3-13, 2024-3-14, 2024-3-15, 2024-3-16, 2024-3-17, 2024-3-18, 2024-3-19, 2024-3-20, 2024-3-21, 2024-3-22, 2024-3-23, 2024-3-24, 2024-3-25, 2024-3-26, 2024-3-27, 2024-3-28, 2024-3-29, 2024-3-30, 2024-3-31, 2024-4-1, 2024-4-2, 2024-4-3, 2024-4-4, 2024-4-5, 2024-4-6, 2024-4-7, 2024-4-8, 2024-4-9, 2024-4-10, 2024-4-11, 2024-4-12, 2024-4-13, 2024-4-14, 2024-4-15, 2024-4-16, 2024-4-17, 2024-4-18, 2024-4-19, 2024-4-20, 2024-4-21, 2024-4-22, 2024-4-23, 2024-4-24, 2024-4-25, 2024-4-26, 2024-4-27, 2024-4-28, 2024-4-29, 2024-4-30, 2024-5-1, 2024-5-2, 2024-5-3, 2024-5-4, 2024-5-5, 2024-5-6, 2024-5-7, 2024-5-8, 2024-5-9, 2024-5-10, 2024-5-11, 2024-5-12, 2024-5-13, 2024-5-14, 2024-5-15, 2024-5-16, 2024-5-17, 2024-5-18, 2024-5-19, 2024-5-20, 2024-5-21, 2024-5-22, 2024-5-23, 2024-5-24, 2024-5-25, 2024-5-26, 2024-5-27, 2024-5-28, 2024-5-29, 2024-5-30, 2024-5-31, 2024-6-1, 2024-6-2, 2024-6-3, 2024-6-4, 2024-6-5, 2024-6-6, 2024-6-7, 2024-6-8, 2024-6-9, 2024-6-10, 2024-6-11, 2024-6-12, 2024-6-13, 2024-6-14, 2024-6-15, 2024-6-16, 2024-6-17, 2024-6-18, 2024-6-19, 2024-6-20, 2024-6-21, 2024-6-22, 2024-6-23, 2024-6-24, 2024-6-25, 2024-6-26, 2024-6-27, 2024-6-28, 2024-6-29, 2024-6-30, 2024-7-1, 2024-7-2, 2024-7-3, 2024-7-4, 2024-7-5, 2024-7-6, 2024-7-7, 2024-7-8, 2024-7-9, 2024-7-10, 2024-7-11, 2024-7-12, 2024-7-13, 2024-7-14, 2024-7-15, 2024-7-16, 2024-7-17, 2024-7-18, 2024-7-19, 2024-7-20, 2024-7-21, 2024-7-22, 2024-7-23, 2024-7-24, 2024-7-25, 2024-7-26, 2024-7-27, 2024-7-28, 2024-7-29, 2024-7-30, 2024-7-31, 2024-8-1, 2024-8-2, 2024-8-3, 2024-8-4, 2024-8-5, 2024-8-6, 2024-8-7, 2024-8-8, 2024-8-9, 2024-8-10, 2024-8-11, 2024-8-12, 2024-8-13, 2024-8-14, 2024-8-15, 2024-8-16, 2024-8-17, 2024-8-18, 2024-8-19, 2024-8-20, 2024-8-21, 2024-8-22, 2024-8-23, 2024-8-24, 2024-8-25, 2024-8-26, 2024-8-27, 2024-8-28, 2024-8-29, 2024-8-30, 2024-8-31, 2024-9-1, 2024-9-2, 2024-9-3, 2024-9-4, 2024-9-5, 2024-9-6, 2024-9-7, 2024-9-8, 2024-9-9, 2024-9-10, 2024-9-11, 2024-9-12, 2024-9-13, 2024-9-14, 2024-9-15, 2024-9-16, 2024-9-17, 2024-9-18, 2024-9-19, 2024-9-20, 2024-9-21, 2024-9-22, 2024-9-23, 2024-9-24, 2024-9-25, 2024-9-26, 2024-9-27, 2024-9-28, 2024-9-29, 2024-9-30, 2024-10-1, 2024-10-2, 2024-10-3, 2024-10-4, 2024-10-5, 2024-10-6, 2024-10-7, 2024-10-8, 2024-10-9, 2024-10-10, 2024-10-11, 2024-10-12, 2024-10-13, 2024-10-14, 2024-10-15, 2024-10-16, 2024-10-17, 2024-10-18, 2024-10-19, 2024-10-20, 2024-10-21, 2024-10-22, 2024-10-23, 2024-10-24, 2024-10-25, 2024-10-26, 2024-10-27, 2024-10-28, 2024-10-29, 2024-10-30, 2024-10-31, 2024-11-1, 2024-11-2, 2024-11-3, 2024-11-4, 2024-11-5, 2024-11-6, 2024-11-7, 2024-11-8, 2024-11-9, 2024-11-10, 2024-11-11, 2024-11-12, 2024-11-13, 2024-11-14, 2024-11-15, 2024-11-16, 2024-11-17, 2024-11-18, 2024-11-19, 2024-11-20, 2024-11-21, 2024-11-22, 2024-11-23, 2024-11-24, 2024-11-25, 2024-11-26, 2024-11-27, 2024-11-28, 2024-11-29, 2024-11-30, 2024-12-1, 2024-12-2, 2024-12-3, 2024-12-4, 2024-12-5, 2024-12-6, 2024-12-7, 2024-12-8, 2024-12-9, 2024-12-10, 2024-12-11, 2024-12-12, 2024-12-13, 2024-12-14, 2024-12-15, 2024-12-16, 2024-12-17, 2024-12-18, 2024-12-19, 2024-12-20, 2024-12-21, 2024-12-22, 2024-12-23, 2024-12-24, 2024-12-25, 2024-12-26, 2024-12-27, 2024-12-28, 2024-12-29, 2024-12-30, 2024-12-31, 2025-1-1, 2025-1-2, 2025-1-3, 2025-1-4, 2025-1-5, 2025-1-6, 2025-1-7, 2025-1-8, 2025-1-9, 2025-1-10, 2025-1-11, 2025-1-12, 2025-1-13, 2025-1-14, 2025-1-15, 2025-1-16, 2025-1-17, 2025-1-18, 2025-1-19, 2025-1-20, 2025-1-21, 2025-1-22, 2025-1-23, 2025-1-24, 2025-1-25, 2025-1-26, 2025-1-27, 2025-1-28, 2025-1-29, 2025-1-30, 2025-1-31, 2025-2-1, 2025-2-2, 2025-2-3, 2025-2-4, 2025-2-5, 2025-2-6, 2025-2-7, 2025-2-8, 2025-2-9, 2025-2-10, 2025-2-11, 2025-2-12, 2025-2-13, 2025-2-14, 2025-2-15, 2025-2-16, 2025-2-17, 2025-2-18, 2025-2-19, 2025-2-20, 2025-2-21, 2025-2-22, 2025-2-23, 2025-2-24, 2025-2-25, 2025-2-26, 2025-2-27, 2025-2-28, 2025-2-29, 2025-2-30, 2025-3-1, 2025-3-2, 2025-3-3, 2025-3-4, 2025-3-5, 2025-3-6, 2025-3-7, 2025-3-8, 2025-3-9, 2025-3-10, 2025-3-11, 2025-3-12, 2025-3-13, 2025-3-14, 2025-3-15, 2025-3-16, 2025-3-17, 2025-3-18, 2025-3-19, 2025-3-20, 2025-3-21, 2025-3-22, 2025-3-23, 2025-3-24, 2025-3-25, 2025-3-26, 2025-3-27, 2025-3-28, 2025-3-29, 2025-3-30, 2025-3-31, 2025-4-1, 2025-4-2, 2025-4-3, 2025-4-4, 2025-4-5, 2025-4-6, 2025-4-7, 2025-4-8, 2025-4-9, 2025-4-10, 2025-4-11, 2025-4-12, 2025-4-13, 2025-4-14, 2025-4-15, 2025-4-16, 2025-4-17, 2025-4-18, 2025-4-19, 2025-4-20, 2025-4-21, 2025-4-22, 2025-4-23, 2025-4-24, 2025-4-25, 2025-4-26, 2025-4-27, 2025-4-28, 2025-4-29, 2025-4-30, 2025-5-1, 2025-5-2, 2025-5-3, 2025-5-4, 2025-5-5, 2025-5-6, 2025-5-7, 2025-5-8, 2025-5-9, 2025-5-10, 2025-5-11, 2025-5-12, 2025-5-13, 2025-5-14, 2025-5-15, 2025-5-16, 2025-5-17, 2025-5-18, 2025-5-19, 2025-5-20, 2025-5-21, 2025-5-22, 2025-5-23, 2025-5-24, 2025-5-25, 2025-5-26, 2025-5-27, 2025-5-28, 2025-5-29, 2025-5-30, 2025-5-31, 2025-6-1, 2025-6-2, 2025-6-3, 2025-6-4, 2025-6-5, 2025-6-6, 2025-6-7, 2025-6-8, 2025-6-9, 2025-6-10, 2025-6-11, 2025-6-12, 2025-6-13, 2025-6-14, 2025-6-15, 2025-6-16, 2025-6-17, 2025-6-18, 2025-6-19, 2025-6-20, 2025-6-21, 2025-6-22, 2025-6-23, 2025-6-24, 2025-6-25, 2025-6-26, 2025-6-27, 2025-6-28, 2025-6-29, 2025-6-30, 2025-7-1, 2025-7-2, 2025-7-3, 2025-7-4, 2025-7-5, 2025-7-6, 2025-7-7, 2025-7-8, 2025-7-9, 2025-7-10, 2025-7-11, 2025-7-12, 2025-7-13, 2025-7-14, 2025-7-15, 2025-7-16, 2025-7-17, 2025-7-18, 2025-7-19, 2025-7-20, 2025-7-21, 2025-7-22, 2025-7-23, 2025-7-24, 2025-7-25, 2025-7-26, 2025-7-27, 2025-7-28, 2025-7-29, 2025-7-30, 2025-7-31, 2025-8-1, 2025-8-2, 2025-8-3, 2025-8-4, 2025-8-5, 2025-8-6, 2025-8-7, 2025-8-8, 2025-8-9, 2025-8-10, 2025-8-11, 2025-8-12, 2025-8-13, 2025-8-14, 2025-8-15, 2025-8-16, 2025-8-17, 2025-8-18, 2025-8-19, 2025-8-20, 2025-8-21, 2025-8-22, 2025-8-23, 2025-8-24, 2025-8-25, 2025-8-26, 2025-8-27, 2025-8-28, 2025-8-29, 2025-8-30, 2025-8-31, 2025-9-1, 2025-9-2, 2025-9-3, 2025-9-4, 2025-9-5, 2025-9-6, 2025-9-7, 2025-9-8, 2025-9-9, 2025-9-10, 2025-9-11, 2025-9-12, 2025-9-13, 2025-9-14, 2025-9-15, 2025-9-16, 2025-9-17, 2025-9-18, 2025-9-19, 2025-9-20, 2025-9-21, 2025-9-22, 2025-9-23, 2025-9-24, 2025-9-25, 2025-9-26, 2025-9-27, 2025-9-28, 2025-9-29, 2025-9-30, 2025-10-1, 2025-10-2, 2025-10-3, 2025-10-4, 2025-10-5, 2025-10-6, 2025-10-7, 2025-10-8, 2025-10-9, 2025-10-10, 2025-10-11, 2025-10-12, 2025-10-13, 2025-10-14, 2025-10-15, 2025-10-16, 2025-10-17, 2025-10-18, 2025-10-19, 2025-10-20, 2025-10-21, 2025-10-22, 2025-10-23, 2025-10-24, 2025-10-25, 2025-10-26, 2025-10-27, 2025-10-28, 2025-10-29, 2025-10-30, 2025-10-31, 2025-11-1, 2025-11-2, 2025-11-3, 2025-11-4, 2025-11-5, 2025-11-6, 2025-11-7, 2025-11-8, 2025-11-9, 2025-11-10, 2025-11-11, 2025-11-12, 2025-11-13, 2025-11-14, 2025-11-15, 2025-11-16, 2025-11-17, 2025-11-18, 2025-11-19, 2025-11-20, 2025-11-21, 2025-11-22, 2025-11-23, 2025-11-24, 2025-11-25, 2025-11-26, 2025-11-27, 2025-11-28, 2025-11-29, 2025-11-30, 2025-12-1, 2025-12-2, 2025-12-3, 2025-12-4, 2025-12-5, 2025-12-6, 2025-12-7, 2025-12-8, 2025-12-9, 2025-12-10, 2025-12-11, 2025-12-12, 2025-12-13, 2025-12-14, 2025-12-15, 2025-12-16, 2025-12-17, 2025-12-18, 2025-12-19, 2025-12-20, 2025-12-21, 2025-12-22, 2025-12-23, 2025-12-24, 2025-12-25, 2025-12-26, 2025-12-27, 2025-12-28, 2025-12-29, 2025-12-30, 2025-12-31, 2026-1-1, 2026-1-2, 2026-1-3, 2026-1-4, 2026-1-5, 2026-1-6, 2026-1-7, 2026-1-8, 2026-1-9, 2026-1-10, 2026-1-11, 2026-1-12, 2026-1-13, 2026-1-14, 2026-1-15, 2026-1-16, 2026-1-17, 2026-1-18, 2026-1-19, 2026-1-20, 2026-1-21, 2026-1-22, 2026-1-23, 2026-1-24, 2026-1-25, 2026-1-26, 2026-1-27, 2026-1-28, 2026-1-29, 2026-1-30, 2026-1-31, 2026-2-1, 2026-2-2, 2026-2-3, 2026-2-4, 2026-2-5, 2026-2-6, 2026-2-7, 2026-2-8, 2026-2-9, 2026-2-10, 2026-2-11, 2026-2-12, 2026-2-13, 2026-2-14, 2026-2-15, 2026-2-16, 2026-2-17, 2026-2-18, 2026-2-19, 2026-2-20, 2026-2-21, 2026-2-22, 2026-2-23, 2026-2-24, 2026-2-25, 2026-2-26, 2026-2-27, 2026-2-28, 2026-2-29, 2026-2-30, 2026-3-1, 2026-3-2, 2026-3-3, 2026-3-4, 2026-3-5, 2026-3-6, 2026-3-7, 2026-3-8, 2026-3-9, 2026-3-10, 2026-3-11, 2026-3-12, 2026-3-13, 2026-3-14, 2026-3-15, 2026-3-16, 2026-3-17, 2026-3-18, 2026-3-19, 2026-3-20, 2026-3-21, 2026-3-22, 2026-3-23, 2026-3-24, 2026-3-25, 2026-3-26, 2026-3-27, 2026-3-28, 2026-3-29, 2026-3-30, 2026-3-31, 2026-4-1, 2026-4-2, 2026-4-3, 2026-4-4, 2026-4-5, 2026-4-6, 2026-4-7, 2026-4-8, 2026-4-9, 2026-4-10, 2026-4-11, 2026-4-12, 2026-4-13, 2026-4-1



우리말 바꾸기

‘그닥’은 ‘그다지’로

날씨가 급격히 더워져 친구와 새 옷을 사러 갔다. “이 옷 어때?”라는 물음에 “그닥 별로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게까지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은 이가 이처럼 ‘그닥’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워낙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보니 ‘그닥’이 표준어이며, ‘그다지’의 준말이라고 알고 있는 이가 많다. 그러나 ‘그닥’은 말을 줄여 쓰기 좋아하는 누리꾼들에 의해 생겨난 말로, 표준어가 아니다.

입말에서는 ‘그다지’보다 ‘그닥’이 더 많이 쓰인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일상생활에서만 아니라 언론 매체에서도 ‘그닥’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그닥’을 ‘그다지’의 평안도 방언인 ‘그다지’의 준말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생겨난 뒤 쓰임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아 통신 언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온라인상에서는 언어의 경제성이 큰 힘을 발휘하기에, 줄여 쓰는 말들이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그래서 ‘그닥’이 틀린 표현인지도 모르고 표준어인 ‘그다지’보다 빈번하게 쓰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젠가는 생명력을 인정받아 ‘그닥’이 표준어로 등극할지도 모르지만, ‘그닥’은 아직 표준어가 아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틱톡 매각법’과 미국 안보



정레나  
LA특파원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법’이 발효됐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4월 24일부터 270일 이내에(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틱톡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개방적 인터넷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틱톡은 2016년 중국에서 창업됐고, 2018년엔 미국 자회사가 설립됐다. 틱톡은 미국 내 주요 정보 전달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사용자의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54분, 틱톡 덕에 700만 개의 비즈니스가 생겼고 연간 경제적 효과는 약 240억 달러에 달한다. 틱톡의 최대 강점은 지속해서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동영상 알고리즘에 있다.

틱톡은 방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인해 위협성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여러 주정부 차원 등에서 금지가 추진됐다. 하지만 특정 시스템 안에서는 금지됐지만, 주나 연방의회를 통과한 규제안들은 수정 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두 제동이 걸렸다.

2020년에는 트럼프 정부가 외국의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국제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 비상 경제권력법’을 활용해 틱톡을 금지했지만 역시 위헌 결정이 났다. 또한, 지난 3월엔 연방하원

이 ‘적대국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흐지부지됐다. 블룸버그 뉴스는 “데이터의 잠재적 악용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틱톡 매각법은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미국은 틱톡이 보유한 미국인 1억 7000만명에 대한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중국 국가 안보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연방수사국) 국장도 의회 증언에서 중국 정부의 틱톡 통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틱톡 매각법’이 시행되자 예상대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틱톡 최고경영자인 주쇼우즈는 “승소에 자신 있다.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는 정부의 언론 자유 제한법 시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과를 예측하

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틱톡이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가 허용될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외교 정책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때와는 달리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규제 기관은 바이트댄스에 매각 대신 철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산당 선전부가 언론사들에 국민의 반미 감정을 조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틱톡이 금지되더라도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만 사라질 뿐 전화기에 있는 앱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 보안 패치 및 버그 수정이 불가능해서 쓸모없는 앱으로 전락하고 보안 위협성도 커진다. 결국 사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릴스(Reels), 유튜브 쇼츠(Shorts), 스냅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 등이 모두 대안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틱톡법’은 국민의 데이터 보안이 국가 안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삶의 트랙에서

마추픽추



정명석  
시인

이번 남미 여행은 경비행기를 포함해 총 9번 비행기를 탔다. 상당히 바쁜 스케줄이었지만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 나름대로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이 있다. 욕심이 많은 나는 시간이 없고 볼 곳이 많아 가장 효율적인 여행상품을 선호한다.

집을 떠난다는 자체가 힘든 여정이기에 난 나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즐기는 편이다. 여행이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감동하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에는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를 찾아보았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한 곳으로 지정된 이곳은 과연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의 도시 그 자체였다. 마추픽추는 공중 도시 혹은 잃어버린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페루의 수도 리마(Lima)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쿠스코(Cusco)로 간 후 버스, 기차, 버스를 번갈아 이용해 산봉우리를 돌고 돌아 해발 2430m에 있는 마추픽추에 내렸다.

버스에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생각이 멈췄다. 이 마력의 도시에 빨려 들어갔다.

출발할 때 패칭했던 날씨가 순식간에 먹구름을 동반한 비로 변해 잠시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했지만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를 뚫고 지날 때마다 ‘와’하는 감탄사는 그치지 않았다. 문자도 기계도 없었던 15세기 잉카제국이 안데스산맥의 중심부에 돌을 운반해 뛰어난 석조기술로 자르고 쌓아 이렇게 멋진 도시를 세웠다니 과연 불가사의한 일임이 틀림없다.

건물 주위에는 해시계, 태양의 신전 등이 있고 건물마다 창문들이 나 있다. 이 도시는 약 80년 동안 사용된 이후 거주자 없이 방치됐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전해온 천연두 등의 질병으로 모든 거주자가 숨졌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다 1911년 미국의 탐험가인 하이럼 빙엄이 잉

카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이곳을 찾아냈다.

이렇게 100년 전에 발견된 도시는 매력과 매력, 신비의 절정이다. 사방은 눈 덮인 산봉우리기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 사이로 구름이 신선놀음 하듯 춤을 춘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아름다운 색채를 반사하며 신의 조각품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로 도시는 하늘 아래 낙원을 이루고 있었다.

유네스코는 1983년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인류 건축 기술의 걸작이자 잉카 문명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칭송했다. 영국의 계관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햇살과 공기를 마시며 사는 생명체의 느긋함을 배우라. 자연은 인간보다 두드러진 곳, 인간의 감정을 건전하고, 순수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교정해 준다. 자연을 자주 여행하는 것이 도시의 악을 씻어내는 필수적인 해독제다’라고 썼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 비행기를 탔다. 여명이 밝아오자 하늘은 새날을 약속하듯 새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 이불 사이사이로 불그스름한 해를 수줍게 밀어 올리며 찬란한 자태를 드러냈다.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 빌딩 3층

**마이클 장**

맞춤 용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3일에 한번 만취해야 버텼다, 직장과 창작 이어준 술

**이문열, 시대를 쓰다(4)**  
**신문사 그만두고 80년대 최고 작가로**

1979년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인 『사람의 아들』이 무섭게 팔려 나가자 문예지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작품 청탁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구 매일신문의 편집기자였던 나는 일일이 청탁에 응할 수 없었다. 아마 절반도 받아주지 못했던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원고 줄 곳을 골라야 할 때는 오기를 부렸다. 일종의 양값음이었다. 등단 전 내 원고 게재를 거부했던 횡수만큼 잡지사들에 퇴짜를 놓은 다음에야 원고를 줬다. 가령 한 잡사가 이전에 내 요청을 두 차례 거부했다면 이제는 내 쪽에서 그 잡지사의 청탁을 두 번째까지 거절한 다음 세 번째 원고 청탁을 해오면 그제야 응하는 식이었다. 대신 써줄 때는 최선을 다해 썼다.

**등단 전 문예지에 퇴짜 당한만큼 '양값음'**  
 그러다 보니 신문사를 그만두고 글만 쓰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굳이 신문사를 다닐 필요가 없긴 했다. 당시 잡지 원고료는 지금보다 훨씬 후했다. 200자 원고지 한장당 천몇백원이었던 것 같다. 어지간한 봉급생활자 일당이 5000~6000원인 시절이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시간의 일부만 떼어내 글 쓰는 데 투자해도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봉급 정도는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도 신문사를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나는 무방비 상태가 두려웠다. 아무런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여겼던 소설과 달리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나를 신문사에 붙들 어둔 이유의 하나였다.

대구매일은 유력지였다. 나는 기사 크기를 조정할 다음 제목을 달아 배치해 기사를 살리거나 죽이는 편집기자가였다. 아침에 3단 크기의 비판 기사가 나가면 대부분 오후에 시정이 이뤄졌다. 그때만 해도 내가 다니는 직장마다 탐문하고 다니던 대공분과 형사에게 털 시달리기 시작한 것도 대구매일 기자가 되고서였다.

무엇보다 문학이 과연 내가 '가야 할 만 리 길'인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80년 초에 출간한 내 두 번째 소설 『그해 겨울』에 붙인 '作家(작가)노우트'에 나는 이런 문장을 썼다.

“문학이 아직도 내 종교가 되지 못하



1981년 6월 중앙일보에 역사소설 '그 찬란한 여명'을 연재할 당시의 소설가 이문열(왼쪽)과 삽화를 그린 김세종 화백. [중앙포토]

『사람의 아들』 뒤 작품 의뢰 줄이어  
 기자 겸업하며 79년에만 9편 발표  
 “문학, 내 종교가 못돼 안타깝다” 고뇌  
 81년 충동적으로 사직, 글쓰기 몰두

“는 게 늘 안타깝다. 고향의 전통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남은 여기(餘技)로만 여기던 시대보단 한결 진보해서 이제 내 생의 중요한 일부란 느낌이 갖게 되었다.”

유가의 전통이 뿌리 깊은 고향의 가르침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범문사(凡文事) 일향호작(一向好着) 개탈지(皆奪志)”라고 해서 글 쓰는 것에 너무 치우치면 큰 뜻을 잃어버린다는 『소학』 문장이다. 문중에서 소설가 후예를 달가워할 리 없었다.

**문예중앙에선 '황제를 위하여' 말투 인기**  
 기자와 작가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피로할 수밖에 없었다. 퇴근해, 한 시간 정도 잠을 자 두면 이른날 새벽 4시까지 읽고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출근하려면 아침 7시에는 일어나야 했다. 2~3일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 날은 푹아떨어질 때까지 술을 마셔야 한다. 그래야 심신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당시 술 습관을 나는 밤의 창작 활동과 낮의 직장 생활을 연결해 주는 꺾쇠라고 불렀다. 그런 식으로 등단한 79년 한 해에만 중편 네 편과 단편 다섯 편을 썼다.

81년 여름 충동적으로 신문사를 그만둔 다음 이듬해 봄까지 동면하는 동물처럼 두문불출하며 글쓰기에 몰두했다. 작가가 되는 일을 더 이상 먼 추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믿음과 결의 같은 게 있었다. 또래에 비해 늦게 등단해

남비한 세월을 벌충하듯 맹렬한 글쓰기의 충동에 내몰렸던 기억이 난다.

대량생산의 절정은 83년이였다. 잇따라 화제작들을 내놓자 신생 잡지였던 계간 문예중앙이 발 빠르게 연재를 제안했다. 나를 곧 '문창후(文昌侯)'라고 부르게 될 당시 권영빈(2021년 작고) 주간에게 『영웅시대』 원고 초안을 보였더니 탐탁지 않아 했다. 그래서 80년 가을 호부터 연재한 작품이 '황제를 위하여'였다. 문창후는 소설에서 나라를 개국한 황제가 일국의 대표적인 학자, 종사(宗社)의 문형(文衡)으로 삼겠다며 신기주이라는 인물에게 내린 작호다.

권 주간은 잡지 편집부 직원들이 소설의 우스꽝스러운 의고전체(擬古典體)를 흉내 낼 만큼 사내에서 소설이 인기라고 전했다. 근무시간에 슬쩍 사무나 가는 직원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한운고학(閑雲孤鶴) 하천불비(何天不飛), 한가로운 구름 외로운 학이 어느 하늘엔들 날지 못하겠느냐'고 소설식으로 답하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를 '문창후 문열공'이라고 불렀다.

**시국사범 이재오 도우려 출판사 바뀌**

연재를 마친 '황제를 위하여'는 당연히 중앙일보사에서 출간해야 했다. 그런데 훗날 김지하의 『오적』을 출간한 동광출판사의 최동진(2016년 작고) 사장이 끼어들었다. 책을 팔아 당시 시국사범 이재오를 도와주자는 취지였다. 훗날 정치인이 된 이재오는 집안 손자뻘이지만 나보다 나이는 많아 어른들 없을 때는 형이라고 부를 만큼 친한 사이였다. 그렇게 해서 『황제를 위하여』는 동광에서 출판했으나 큰 반응이 없다가 91년 고려원에서 출간돼 인기를 끌었다. '황제를 위하여' 대신 나의 첫 연애 소설인 『레테의 연가』를 중앙일보에 주면서 바쁜 83년이 시작됐다. 여성중

83년 연애소설 '레테의 연가' 시작  
 '영웅시대' '그 찬란한 여명'까지  
 세계 소설 동시연재 다작의 절정  
 동인·이상문학상 등 상복도 터져

양 1월호부터 5월호까지 연재한 다음 9월에 책으로 묶였다. 그런데 나는 그 전해 가을부터 계간 세계의 문학에 '영웅시대'를 연재하고 있었다. 81년 6월부터는 중앙일보에 백제의 요서경략설을 다룬 역사소설 '그 찬란한 여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일 연재 중이었다. 83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세계 소설을 동시에 연재했다. 여름에 한술 돌린 다음 그해 가을에는 다시 3개 소설 동시 연재로 되돌아갔다. 경향신문에 '평역 삼국지'를 연재하면서다. 한 평론가가 "있는 책을 베껴 써도 이 정도 속도는 어려울 것 같다"고 농담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내 소설은 인기였고 상복도 있었다. 82년 중편 '금시조'로 동인문학상, 83년 『황제를 위하여』로 대한민국문학상, 84년 『영웅시대』로 중앙문화대상, 87년 중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한국 문학사에 다산왕 같은 이가 나림(那林) 이병주(1921~1992)다. 그와는 인연이 제법 된다. 68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선생을 만났다. 서울 약수동에서 가정교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의 자제분이 그 집에 놀러 오던 게 계기가 됐다. 동아일보 등단 전 77, 78년 무렵에는 『자본론』 같은 좌파 서적을 보러 서울 용산의 선생 자택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와세다대 불문과에서 공부하고 부산일보에서 주필 등을 지낸 그는 5·16

직후 '조국은 없고 산하만 있다'는 논설을 썼다가 2년 7개월간 복역했다. 감옥 안에서 "출소하면 최고급 사치를 누리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실천했다. 술을 마셔도 위스키나 코냑만 마셨다. 사치를 위해서였는지 초인적으로 썼다. 서너 군데 신문·잡지에 소설을 동시 연재하다가 연재소설들의 주인공을 바꿔 써준 적도 있었다. 만나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형, 나는 그렇다치고 이 형은 너무 그렇게 바쁘게 쓰지 마, 나중에 쓸 거 없어진다고.”

**“문인은 문학작품으로 평가해야”**

선생은 박정희의 술친구였고 말년에 쓴 『대통령의 초상』 같은 데서 전두환을 찬양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지낸 정구영씨,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등 진보·보수를 망라한 50여 명이 2008년 이병주기념사업회를 만들었다. 한쪽에 가뒀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나는 2002년 선생의 10주기 추모행사에 초청받아 “문인은 문학작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지의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나간 사람은 모두 공과가 있고 명암이 있다. 요즘은 이상한 문학 평가 방식이 있다. 문학을 문학작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문학을 문학 자체로 보지 않고 남이 성취해 놓은 것을 깎아내린다. 문학 이외의 것으로 판단한다. 도공이 만든 도자기를 보자. 도공이 내놓은 청자의 빛깔을 보지 않고, 도공이 만들다 깨진 도자기를 찾아내 실패한 도공이라 하는 것과 같다.”

지금도 나는 우리 시대에 이병주 선생만큼 많은 정신적 자산과 체험이나 지식, 감수성의 깊이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 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3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5월 HOT 리스팅

###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임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베릴랜드 / 301-399-0140



**시 설**

**연금개혁 무산은 직무유기... 새 국회서 최우선 처리를**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간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 종료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여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논란이 됐던 5박7일간의 유럽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그동안 뭐하다가 임기 만료를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외유성 출장을 가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던 사안이다.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한 건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와 무책임 때문이다. 현재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지나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다. 1990년생이 65세가 돼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기성세대는 혜택을 보겠지만, 미래 세대는 연금 적자를 매우는 데 소득의 절반가량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데도 정부는 지난해 10월 '땀방 개혁안'을 작성해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 등에서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했는데 비겁하게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3

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연금개혁 논의가 국회로 넘어온 뒤에도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서 넘겨받은 공을 다시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겼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란 대전제는 사라지고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소모적인 공방만 벌어졌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말 시민대표단 다수안이라며 '더 내고 더 받는' 방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제시했지만, 재정 안정을 증시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 등은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새로 구성할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미래 세대를 위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의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25년째 소득의 9%로 동결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여야 협상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안(13%)을 논의의 시작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에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선 절체절명의 위기를 갖고 최우선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이번에도 연금개혁에 실패하고 시간만 낭비한다면 미래 세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결국 여야 합의 실패, '빈손' 종료 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필수... 정치권 결단 시급해**

**기자회견 관전 포인트**



김현기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물었으면 한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도 빠져. 재임 2년 소회 같은 질문도 필요 없다. 631일 만의 회견이다. 시간은 한 시간 정도로 제한돼 있다. 모두발언까지 있다. 장황하게 묻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대통령의 단답형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당시 120분의 발언 대부분은 윤 대통령 몫이었다(민주당 주장 85%, 대통령실 주장 70%). 대통령의 페이스에 휘말릴 수 있다. 자신이 없는 기자는 아예 손들지 않는 게 좋겠다. 되레 회견 후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다. 대통령실은 주제를 폭넓게 가져가려 할 것이다. 그레야 난감한 질문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 입을 통해 알고 싶은 건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 상병 사건(참모에게 격

#1 여러 해의 지도자들의 기자회견을 현장에서 지켜봐 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2016년 11월 14일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회견.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에 패배한 직후였다. 백악관 출입기자의 질문. "민주당은 충격적인 패배를 했다. 앞으로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느냐" 오바마는 이렇게 답했다. "난 (내 의견이 아닌)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걸 지켜보겠다. 내 임기가 곧 끝나는 게 참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가 2008년 대선 당시 아이오와주에서 이긴 것도 무려 87일 동안 머물며 각 동네를 돌아다닌 끝에 힘겹게 이겨낸 것이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inevitably) 이긴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변할 수밖에 없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변하는 법이다." 우선 당 패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새 길'에 자신이 방해세력이 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치열한 반성과 각성, 변화를 향한 열정은 모두의 몫임을 고급지게 설명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 주먹을 쥐고 "내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반박 또는 변명하지 말라. 고개 숙이고 "내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이해를 구하라. 국민은 보이는 걸 믿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장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솔직히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제 책임이 큼니다. 대신 당장 큰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리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제발 법률가가 아닌 대통령의 화법으로 답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마지막 기회 대통령, 주먹 쥐지 말고 고개 숙여라 기자, 매섭고 집요하게 재확인하라**

노한 게 맞는지, 특검법 어떻게 할지, 이종섭 전 대사를 왜 서둘러 출국시켰는지) ▶김건희 여사 의혹(디올 백 왜 받았는지, 어디에 뒀는지, 왜 사과를 하지 않는지) ▶국정 운영 방향(이대로 향후 3년을 식물 대통령처럼 이끌 건지, 야당과의 협치 제도화는 어떻게 할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물길 바란다. 대통령이 두루뭉술하게 답하면 사전에 준비한 다른 질문 말고 이 부분을 추가 질문으로 매섭게, 집요하게 재확인하길 바란다. 사실 이 세 사안에 대해 국민은 그 어떤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미국의 전설적인 백악관 출입기자 토머스 헬런의 말처럼 기자가 캐묻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돼버린다. 기자회견이지, 대통령회견이 아니다. 잊지 말자.

셋째, 기자는 질문을 해야지 도발하면 안 된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깎아내리거나 모멸감을 주려 해선 곤란하다. 그건 정의로움이 아니다. 국민은 내공에서 배어 나오는 매서움과, 태도에서 배어 나오는 무식함을 금방 구별한다. 대통령과 기자들의 불꽃튀는 60분 공방을 기대한다. **논설위원**

**수출도 좋지만... K방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K방산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혔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보라매 사업) 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KF-21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개발비의 일부를 분담키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1조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어제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8조1000억원을 들여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4.5세대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공군의 노후 기종인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향후 수출로 개발비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16년 한국 정부가 개발비의 60%를,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0%를 부담키로 하는 계약이 이뤄졌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개발에 성공한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가 계약 당시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KAI 사천공장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관련 자료를 빼돌리다 적발된 시점에 인도네시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먹튀 논란

까지 불거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지불하는 금액만큼의 기술만 제공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국방부 주변에선 인도네시아가 이미 설계도까지 통째로 빼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그간 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정부와 업체(KAI)가 부족분을 부담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비를 떠안으면 원가가 상승해 수출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국민의 세금도 그만큼 더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일을 무기 수출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한국은 지난해 K-2전차 등 명품 무기를 앞세워 173억 달러(약 23조6100억원)어치의 무기 수출을 수주해 2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기록했다. 정부는 현금이 부족한 나라에 차관을 주고, 국회는 연간 15조원이었던 차관 한도액을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방산 세계에선 차관으로 무기를 수입한 채무국이 상환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갚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무기 수출 확대에 전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가 돼선 안 된다. 제2의 인도네시아 사태를 막기 위한 기술 유출 방지와 차관 상환 등의 체계적인 안전장치 마련은 정부의 몫이다.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joon.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 불만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제1저리사(주)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経済新聞, 日経新聞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이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 가이드

**Korea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관광의 모든 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낌없이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최고급 럭셔리

#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2차 6/18-6/28 (영어가이드) 3차 9/24-10/4 **마감 임박**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선**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남**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남/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남** 3박+고국 7박 (노을선) 1차 5/18-5/29 \$3090+항공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2차 5/21-6/1 \$3590+항공 4차 11/12-11/23 \$3590+항공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일출발**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현대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남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워터파크, 콜로세움쇼,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약어농장, 백만년비위공원, 태극독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미안 해양관광공원, 아프로디테쇼,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알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허롱데마피코, 호치민명묘, 생원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퍼사원, 다남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작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리오하체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산현곡, 화려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춘, 아류레앙 국립공원, 자유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랜드,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공원, 차이아티움, 센트사트, 실로소바티

**메모리얼 데이 특선**

**나이아가라 왓민스글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음뻐 느낄 수 있는 여행!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레지워스 주립공원 북아메리카 최대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인개속녀탕송)  
 2박 3일 5/25-5/27 \$650

**뉴욕 특선**  
 업그레이드 된 디럭스 호텔, 브루클린 덤보, 배슬, 허드슨 아드, 잊지 전망대, 스테이크 특선  
 1박 2일 5/26-5/27 \$450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매주출발**  
 대행버스 출발: 6/24, 7/22, 8/5

**뉴욕** 동부 명소 해관 뱃속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매주출발**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 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일매주출발**  
 대행버스 출발: 7/8, 9/23, 10/21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일출발**

**성극 다니엘**  
 \$199  
 5/16, 5/30,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뉴욕** 1박 2일 \$399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엘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일금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일금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59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MAY 9th - MAY 16th, 2024

# 건강은 두배 가격은 반값



★ HF 양념장어(우나기) 세일 ★  
HF UNAGI KABAYAKKI GRILLED EEL



PLUS



# 2 PK (7 OZ) FOR 9.99

GRAND OPENING Richmond, VA 79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 Sterling, VA 35 Poppon Hill Dr., Sterling, VA 20155 | Centreville, VA 5900 Center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3950 Metrocenter Dr., Chantilly, VA 20151 | Annandale, VA 5204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 Ashburn, VA 4350 Farnsworth Hunt Place, Ashburn, VA 20147 | Herndon, VA 4900 Jan Street, Herndon, VA 20170 | Ellicott City, MD 69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1 | Catonsville, MD 60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029 |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y 9,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법**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소액 클레임 피하고 할인정책 문의하라

**주택보험료 절약하려면**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보험료는 25~35%나 인상됐는데 특히 산불과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가 직격탄을 맞았다. 고급 주택 보험을 취급하는 HUB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HUB Private Client)에 따르면 플로리다 남부 소재 한 고급 주택 보험료는 기존 1만2000달러에서 7만2000달러로 600%나 인상된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갈수록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왜 오르나**  
주택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 여파. 한 트렌드 조사 기관(Chubb Market Trends 2023)에 따르면 2021~2022년 사이 고급 가전 가격은 5~16% 상승했다. 건축비도 크게 올랐는데 배관 자재의 경우 최대 35% 상승했으며 인건비 역시 올랐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는 것도 보험료 인상에 한몫했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자연재해까지 빈번해지고 있는 것도 보험료 인상의 큰 원인이다. 이는 비단 가주와 플로리다뿐만 아니다.  
HUB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대호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보험사들은 6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외에도 각종 태풍과 우박 피해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실은 각각 170억 달러와 11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 전문가들은 “매년 각종 자연재해로 수십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



우기 시 누수와 손상 위험이 큰 노후된 지붕을 교체 또는 수리하면 주택보험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 (unsplash.com 캡처)

## 가연성 자재 내화성으로 교체하면 도움 차·주택 보험 묶으면 ‘번들 할인’ 가능

하면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책정되나**  
주택보험료 책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 연식. 노후 주택은 화재 및 자연재해 등에 취약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또 값비싼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된 새집들도 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보장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는 오르고 공제액이 클수록 낮아진다.  
이외에도 이전에 보험 청구를 한 적이 있으면 보험사는 이 역시도 향후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는 수십 개의 조건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결혼 여부, 반려동물 여부, 소방서까지의 거리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신용기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신용 기록이 나쁘면 보험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다.  
**▶요금 할인받으려면**  
보험료 절약의 첫걸음은 처음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 보험 갱신 시 최소 2~3개 이상의 여러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이다. 동일한 커버리지임에도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동차 보험과 주택보험 회사가 다르다면 이를 한 회사로 묶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보험사들마다 여러 종류의 보험 가입 시 이에 따른 ‘번들 디스카운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사 할인정책에 대해서도 문

의하는 것도 잊지 마라. 보험사 할인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 안전이 담보됐을 때 제공하는 할인인데 여기에는 스마트 연기감지기나 보안시스템이 해당된다.  
또 충성고객을 위한 할인(Loyalty discounts)도 있는데 이는 동일 주택보험을 장기간 소유했다면 그동안 이렇다 할 할인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할인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선호하는 페이먼트 옵션 선택 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 지불 또는 보험료 전액을 미리 선납하는 등 특정 지불 옵션을 선택하면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할인이나 군인 할인 등도 있으므로 보험사에 연락해 내게 맞는 할인 정책이 있는지 문의하도록 하자.  
보험료 절약을 위해 공제액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제액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은 올라가지만 보험료는 싸진다. 그러나 공제액 변경 시 만일의 경우 인상된 공제액을 부담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해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낭패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빈번한 보험금 청구나 소액 클레임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소액이라도 보험금 신청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관리**  
주택보험료를 줄이려면 결국 보험사에게 소유 주택이 각종 위험과 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  
**▶6면 ‘주택 보험료’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b>유명 델리</b> DC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손수익 = 주임운영 월이 1만불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b>발티모아 부근</b>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b>버블티 가게</b>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익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b>창고자리 임대</b>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현트
<b>식당 자리</b> 6,408 SF, 엘바나 메릴랜드	<b>도장</b>	<b>그로서리</b>
<b>식당 자리</b>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b>태권도장 자리</b>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b>식당 자리</b>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인바우 매릴랜드	<b>태권도장 자리</b>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b>상가</b>
<b>식당 자리</b>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b>사무실</b>	<b>단독 건물</b> 맥클린, 단독건물, 4백50만불, 6,000 SF
<b>식당 자리</b>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b>에난데일 사무실</b>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b>상가 매매</b>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b>식당 자리</b>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b>사무실 자리 임대</b>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b>발티모아 상업건물</b>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b>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b>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b>사무실 자리 임대</b>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b>주책</b>
		<b>콘도</b> 방2, 화장,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먼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책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 “사지 말라”가 “사라”로 들렸다... 주가 띄운 머스크의 ‘수’

〈數〉

“미래에 자율주행이 아닌 휘발유차(gasoline cars)를 타는 건 최신폰을 쓰면서 말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 시장이 다시 한 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설득 당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1분기 동안 40% 넘게 빠지더니 하루 만에 12% 치솟았지요. 머스크가 직접 나선 콘퍼런스콜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되살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설득한 건 단순히 그의 ‘말’뿐만은 아니었죠.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발표에서 테슬라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요한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숫자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던 테슬라를 다시 일으켜세우고 있는 걸까요?

테슬라의 미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완전자율주행(FSD·Full-Self Driving) 데이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서비스 매출 비중, 인공지능(AI) 투자 금액 등에서 엿보인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보급형 전기차 ‘모델2’와 ‘사이버캡(로보택시)’의 진행상황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정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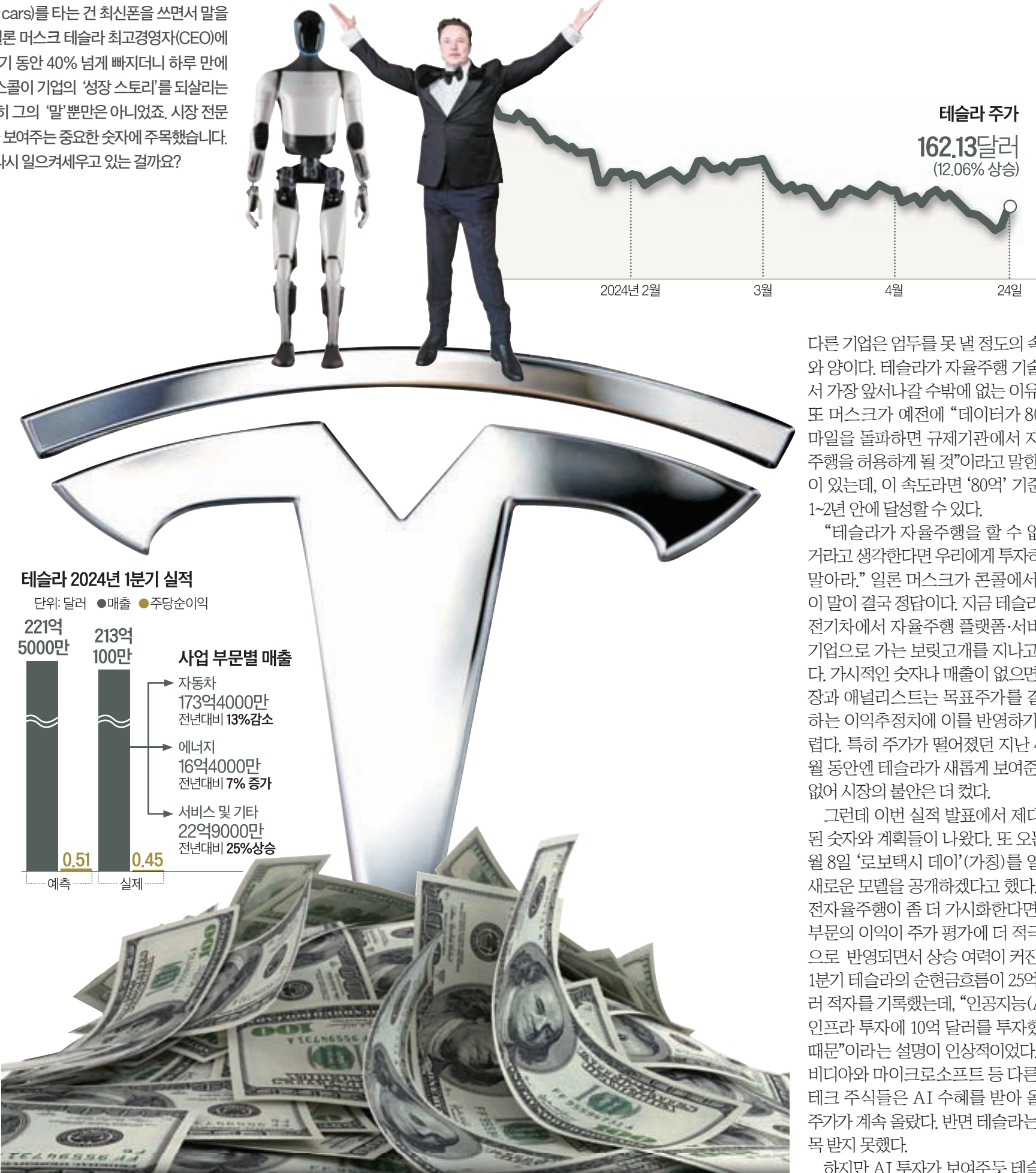
이번 실적 분석에는 강영수 KCGI 자산운용 본부장, 고태훈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본부장, 김강일 KB자산운용 이사 등 국내 자산운용사 글로벌펀드 운용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고 본부장은 이날 이미지로 공개된 자율주행택시 호출 기능(ride-hailing functionality)을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13억 달러(약 29조 3100억원), 순이익은 11억2900만 달러(약 1조5500억원)였다. 이 기간 주당순이익(EPS)은 0.45달러에 머물렀다.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였다. 그럼에도 테슬라 주가는 실적이 발표되자 12% 급등했다.

테슬라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56%였다. 실적 부진은 이미 예상한 결과였다. 하지만 콘콜(콘퍼런스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의혹을 모두 해소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대표적인 게 저가 전기차 모델2 생산 포기 루머다. 머스크는 오히려 모델2 출시 시기를 2025년 하반기에서 2024년 말~2025년 초로 앞당기며 반박에 나섰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성장 서사(narrative, 敍事)도 되살렸다. 그는 ‘사이버캡’이라는 차세대 로보택시 이름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테슬라 차량 호출 기능(ride-hailing functionality)도 이미지로 구현해 보여줬다. 미래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어떤 방식일지 엿볼 수 있는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미래에는 자율주행이 아닌 휘발유 자동차는 최신폰을 쓰면서 말을 타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이 역시 인상 깊은 멘트였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최근 토요타의 아키오 토요타 회장이 “전기차 침투율은 절대 40%를



넘길 수 없다”는 말에 대한 반론이자 테슬라의 사명과 직결되는 코멘트를 그답게 전달했다.

자동차 사업 부문은 13% 역성장했지만 에너지 부문은 7% 성장했고, 자율주행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25%나 성장했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 매출 비중이 10.7%

로 역대 최고치까지 커졌다. 2016년 애플이 서비스 매출 비중을 10%에서 20%까지 끌어올리면서 주가수익비율(PER)이 10배 이하에서 20배까지 올랐다는 걸 떠올릴 필요가 있다. 테슬라도 하드웨어 판매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면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완전자율주행(FSD) 마일리지가 누적 13억 마일을 넘겼다는 수치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8억 마일이었는데, 분기마다 2배씩 늘고 있다. FSD 마일리지란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로부터 얻는 주행데이터를 말한다. 현재 테슬라 100만 대가 매일 주행데이터를 모으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기업은 엄두를 못 낼 정도의 속도와 양이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앞서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머스크가 예전에 “데이터가 80억 마일을 돌파하면 규제기관에서 자율주행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속도라면 ‘80억’ 기준도 1~2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투자하지 말라.” 일론 머스크가 콘콜에서 한 말이 결국 정답이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플랫폼·서비스 기업으로 가는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 가시적인 숫자나 매출이 없으면 시장과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를 결정하는 이익추정치에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주가가 떨어졌던 지난 4개월 동안엔 테슬라가 새롭게 보여준 게 없어 시장의 불안은 더 컸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제대로 된 숫자와 계획들이 나왔다. 또 오는 8월 8일 ‘로보택시 데이’(가칭)를 열고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완전자율주행이 좀 더 가시화한다면 이 부문의 이익이 주가 평가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상승 여력이 커진다. 1분기 테슬라의 순현금흐름이 2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빅테크 주식들은 AI 수혜를 받아 올해 주가가 계속 올랐다. 반면 테슬라는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AI 투자가 보여주듯 테슬라 역시 AI 선도기업 중 하나라고 본다. 최근 챗GPT나 메타의 거대언어모델(LLM)이 벌써 훈련용 데이터 부족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달리고 있는 차량을 통해 현실세계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의 10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www.GIANTREALTY.com

##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50년간 지속가능성 화두로 건축 애플파크·독일 코메르츠방크 등 다양한 친환경 건축물 설계해와 대표작 50개, 모형·영상으로 옮겨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파크는 세계적인 IT기업 애플의 본사 건물이다.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동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17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 4MW의 바이오가스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75%를 충당한다. 최첨단 기술의 자연 환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 거장 노먼 포스터(88)와 그의 자회사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partners)가 설계한 랜드마크 건물이자 최첨단 기술로 완성한 친환경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99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영국 건축가 포스터의 건축 철학과 대표작들을 소개하는 전시 '미래공정:노먼 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무료 관람, 7월 21일까지)가 지난달 25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포스터의 수많은 건축물 중 공공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대표작 50건을 건축 모형과 드로잉, 영상 등 300여 점으로 소개한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포스터는 10대 때부터 공작을 건물 도면들로 채울 정도로 일찍이 건축에 매료됐다. 맨체스터 대학, 미국 예일대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1962년 예일대 동창인 리처드 로저스 등과 '팀4(Team 4)'로 일을 시작했다. 현재 포스터 앤 파트너스에선 2000명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한국에선 판교의 한국타이어 본사와 대전의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애플스토어 명동·가로수길점 등을 설계했다.

전시는 '지속가능성'과 '레트로핏'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 '공공을 위한 장소 만들기' '미래건축' 등 다섯 가지 키워드로 살핀다. 포스터는 한국 관람객에게 전한 영상 인사에서 "지속가능성은 50년 이상 지속해온 내 건축의 중심 화두였다"며 "친환경 건축이 지금은



## 애플파크·달 거주지 프로젝트 건축거장 포스터의 철학을 본다



첨단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포스터 앤 파트너스의 건축물. 1 미국 실리콘밸리의 '애플파크'. 2 오이 피클(gherkin)을 닮아 '거킨빌딩'으로도 불리는 영국 런던 '30 세인트 메리 엑스'. 3 건물의 안뜰에 유리천장을 덮어 변모시킨 영국박물관 대중정. Nigel Young 촬영.

[사진 Foster + Partners]

보편적이지만 1960~70년대만 해도 매우 혁신적인 개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친환경 건축 선구자이자 미래학자 벽민스터 풀러(1895~1983)와 함께 첨단 기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했다. 풀러와 협력해 그는 1970년대 초

반,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 구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한 뒤 이를 결합해 구성된 돔)으로 도시 자체를 덮어줘 내부에 인공환경을 갖춘 미래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층 건물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독일 프

랑크푸르트에 있는 53층 높이의 코메르츠방크 본사 건물(1991~1997)은 세계 최초의 생태학적 오피스 타워이다.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이 건물은 에너지 소비 수준이 기존 사무용 건물의 절반 정도다.

포스터가 풀러와 함께 탐구했던 미



지난달 25일 개막한 '미래공정:노먼 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 전시 전경. [사진 서울시립미술관]

래형 건축의 아이디어는 후에 런던의 대표적인 현대 건축물 중 하나인 30 세인트 메리 엑스(1997~2004)에 큰 영감을 줬다. '거킨 빌딩'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총알 모양으로 5500장의 유리가 외벽을 둘러싸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비슷한 규모 건물의 40% 정도다.

역사적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현대적 해석을 더하는 '레트로핏'도 포스터의 건축 철학을 대변하는 키워드다. 런던 영국박물관의 대중정(1994~1999)이 대표적이다. 오랫동안 존재감이 거의 없던 안뜰에 유리 천장을 씌워 박물관의 가장 중심 공간으로 변모시킨 경우다.

전시는 현재를 넘어 미래에 닿아 있는 그의 시점을 보여준다. 유럽우주국(ESA), 미국항공우주국(NASA)와 함께 협업한 달 거주지 프로젝트(2012)와 화성 거주지 프로젝트(2015)다. 드론공항(2016)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중앙 아프리카 오지에 긴급 생필품이나 의약품 전달하기 위한 드론 공항은 노먼 포스터 재단이 2030년 실현을 목표로 설계를 하고 있다.

전시는 미술관에서 건축물을 직접 보여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초기 아이디어가 시간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을 정교한 모형과 영상으로 보여줬다.

포스터 앤 파트너스의 마릴루 시콜리 시니어 파트너(건축가)는 "포스터의 건축물에 공통점이 있다면 첨단 기술을 최대치로 반영한 디자인, 디테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다. 특히 그 어떤 작은 것에도 "지나치게 디테일한 것은 없다"는 철학이 있다"고 전했다.

이은주 문화선임기자

Tesla의 로봇 개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연내 제한적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옵티머스)을 실제 작업에 투입하고, 내년 말엔 외부 판매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FSD와 로봇 등 AI 부문은 향후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건 이연매출 증가세다. 이연매출은 고객이 비용을 지불했으나 테슬라가 아직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지 않아 부채로

잡혀 있는 매출이다. 2023년 말 이연매출은 61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24.3%나 된다. 이 중 FSD 관련 이연매출이 35억 달러로, 전체 이연매출의 약 50%다. 테슬라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숫자이자 향후 FSD가 활성화

되기만 하면 매출에 폭발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은 우울할 때는 '전기차 회사'라는 테슬라의 현재를 보고, 환희에 차 있을 때는 '자율주행과 AI 회사'라는 미래를 말한다. 금리가 높고 미국의 소

비가 꺾이는 지금 상황에선 시장이 전기차 회사로서의 인도량과 매출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다. 한동안 테슬라 주가는 전기차 회사나, 인공지능 회사나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게 될 것 같다.

김연주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b>\$1,110,000</b>	<b>\$426,000</b>	<b>\$580,000</b>	<b>\$840,000</b>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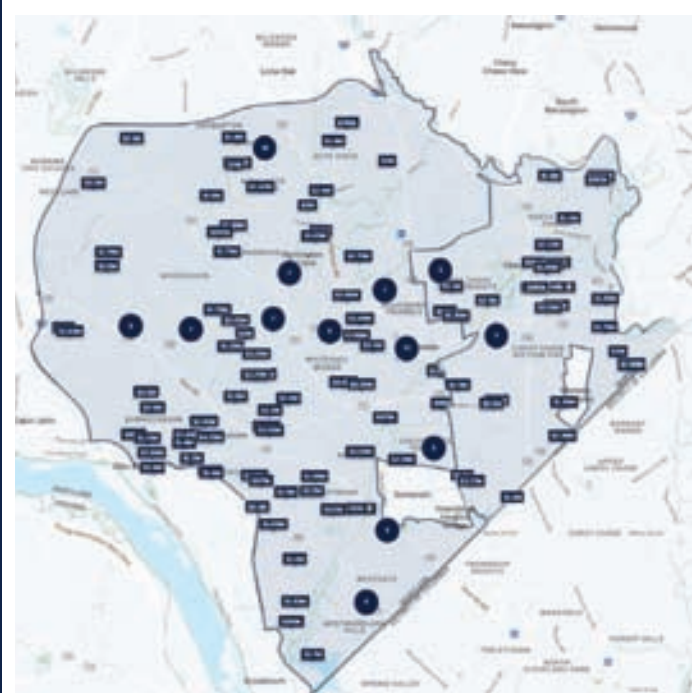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DMV 마켓 트렌드



## Bethesda, MD & Chevy Chase, MD

Bethesda Market Trends			Chevy Chase Market Trends		
Median Days on the Market 7 <small>Reported by the 99th of listings price</small>	Number of Homes Sold 31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Construction Year Before 1969	Median Days on the Market 12 <small>Reported by the 99th of listings price</small>	Number of Homes Sold 67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Construction Year Before 1969
Median Sales Price \$1,177,50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Price Per Square Foot \$475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Rent per Month \$2,208	Median Sales Price \$1,700,00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Price Per Square Foot \$49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Rent per Month \$2,088

베데스다-체비체이스는 메릴랜드와 DC의 최고 공립 학교이자 NIH와 Walter Reed Hospital을 포함한 주요 고용주와 함께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형성되어, 오늘날 판매자들에게 큰 기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의료시설과 훌륭한 레스토랑이 밀집된 지역으로, 은퇴하는 장년층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 McLean, VA & Arlington, VA

Arlington Market Trends			McLean Market Trends		
Median Days on the Market 10 <small>Reported by the 99th of listings price</small>	Number of Homes Sold 1,007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Construction Year Before 1969	Median Days on the Market 8 <small>Reported by the 99th of listings price</small>	Number of Homes Sold 252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Construction Year Before 1969
Median Sales Price \$722,00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Price Per Square Foot \$481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Rent per Month \$2,094	Median Sales Price \$1,675,00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Price Per Square Foot \$44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Rent per Month \$3,148

많은 사람들에게 버지니아는 베데스다와 체비체이스, NW DC의 "쌍둥이"로 여겨집니다. 맥클린과 알링턴은 버지니아에서 최고의 공립학교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회 의원과 국가 지도자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링턴/맥클린 지역은 또한 메트로 오렌지 라인과 I-66 도로를 따라 CIA와 많은 IT 및 방위산업의 중요한 고용처에 인접해있고 교통이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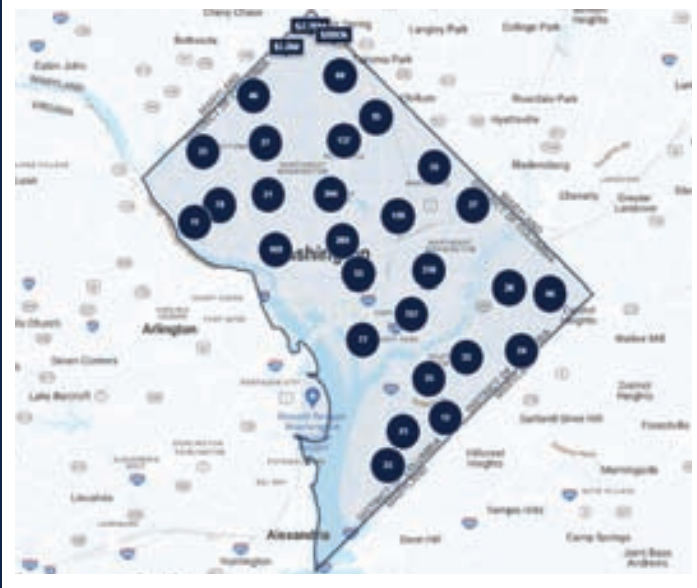
## Alexandria, VA

Alexandria Market Trends		
Median Days on the Market 7 <small>Reported by the 99th of listings price</small>	Number of Homes Sold 859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Construction Year Before 1969
Median Sales Price \$673,50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Price Per Square Foot \$442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Rent per Month \$1,848

알렉산드리아는 I-495 내부에 위치하면서도 모든 도시적 특성을 갖춘 동시에 남부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랜딩(National Landing) 개발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아마존의 HQ2를 중심으로 한 최신 기술 노동인력을 유치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율(Absorption Rate)이 한 달도 안 돼 대부분의 주택이 2주 이내에 판매됩니다. 따라서 강력한 판매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sorption Rate: 공실(vacant space) 중 특정 기간 중 사용자에게 임대되거나 팔린 부동산 공간 비율.



## Washington, DC

Washington DC, Market Trends		
Median Days on the Market 21 <small>Reported by the 99th of listings price</small>	Number of Homes Sold 2,886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Construction Year Before 1969
Median Sales Price \$630,00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Price Per Square Foot \$500 <small>1 month average</small>	Median Rent per Month \$1,681

DC 내의 지역들은 서로 매우 다릅니다. NW 지역은 베데스다와 유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NE와 SE 지역은 연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 많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DC에 있는 여러 개발업자들을 대표하여 많은 아파트 매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님들을 위한 DMV 지역 마켓트렌드 업데이트입니다!

부동산시장은 현재 매우 뚜렷하게도 가지로 나뉩니다: 판매자시장 또는 구매자시장입니다.

“판매자시장”에서는 판매자가 유리합니다. 이는 재고가 낮아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 경우 여러 구매자가 단일 부동산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찰경쟁이 발생하여 판매자가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는 Fairfax와 Montgomery 카운티의 McLean, Great Falls, Vienna, Bethesda, 그리고 Potomac 등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200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구매자시장”에서는 구매자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재고가 높아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해당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 대신 자신의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정가보다 낮은 가격대로 판매되거나 주택 점검, 감정평가, 자금조달 등과 같은 모든 유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DC의 대부분의 콘도와 DC의 Rock Creek Park 동쪽(공원 동쪽 또는 EOTP)에 있는 단독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몇몇 동네에서 구매자 수요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요인 중 하나는 “학군”입니다. 대부분의 DMV 거주자들이 자녀를 위해 학업적으로 엄격한 공립학교 선택을 원하기 때문에, 최고의 학군에 위치한 주택들의 가치는 꾸준히 잘 유지되며 가장 많은 구매자들을 유치합니다. 따라서 좋은 학군이 현재 McLean, Great Falls, Vienna, Bethesda, 그리고 Potomac에서 가장 유리한 판매자시장이 꾸준히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직장까지의 거리입니다. 연방정부가 재택근무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 복귀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DMV 주요통근수단인 레드, 오렌지, 실버 메트로 노선을 따라 Arlington, VA와 같이 도시 중심에 더 가까운 곳에 살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DC의 작은 콘도로 수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팀에게 연락해 주세요!





THE CENTURION GROUP

THE CENTURION GROUP  
TTR |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 차별화된 Sotheby's 만의 격조 있는 서비스를 지금! 경험 하세요.



**Sylvia Son**  
Preferred Lender/Sr. LO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David Park**  
Managing Principal  
+1.646.644.2564  
dpark@ttrsir.com



**Jenny Park**  
Operations Manager  
+1.858.692.4774  
jennypark@ttrsir.com

계속되는 치열한 매물시장!  
Sotheby's 팀은 바이어님들을 위해 오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럭셔리 콘도미니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CLUSIVE LISTING



\$10,000,000  
콘도, 12유닛, 넓은 주차장, 12,411 SqFt

EXCLUSIVE LISTING



\$9,2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8,132 SqFt

EXCLUSIVE LISTING



\$4,776,000  
콘도, 6유닛, 넓은 주차장, 12,180 SqFt

EXCLUSIVE LISTING



\$3,804,900  
콘도, 12유닛, 7,865 SqFt

## “미래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용자”



**Sylvia E Son**  
Sr. Loan Officer ( NMLS: 2315308)

- 주택용자
- 자영업자용자
- NON-QM
- DSCR용자
- 외국인용자
- 상업용자

VA/MD/DC/TX 외 12개주 가능



(NMLS: 1301672)  
7619 Little River Tnpk, #320, Annandale, VA 22003

+1.703.629.2866 Sylvia.son@emetmortgage.com

An Equal Housing Opportunity Lender. Copyright 2015 - 2021. Emet Lending Group, Inc. DBA Emet Mortgage headquartered at 2601 Saturn St., Ste. 200 Brea, CA 92821. NMLS ID # 1301672. Toll Free # 866-777-3638. All rights reserved. Restrictions may apply. All loans are subject to credit, underwriting and property approval guidelines. 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NMLS) Consumer Access Web Site: www.nmlsconsumeraccess.org.



**용자 칼럼**

**다운 페이먼트 준비하기**

매물부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뜨거운 주택시장에서 높은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매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다운 페이먼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 우리가 사실 주택용자를 얻는데 있어서 준비해야 할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운 페이먼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될 부분이다.

아무리 은행에서 용자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맡아서 책임져야 할 부분, 즉 다운 페이먼트를 제대로 준비 못한다면 주택거래 자체가 마무리 될수 없기 때문이라.

요즘은 은행들의 용자심사에서 특히 다운 페이먼트에 관한 부분, 즉 자산에 관한 심사가 예전에 비해서 더 까다로워졌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충분한 금액이 준비되어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그

과정 또한 유의해야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용자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피할수 있을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까다로워지기만 하는 용자심사라고 불평을 하는이들도 적잖이 있지만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

늘 강조해서 언급하지만 사실 주택용자를 시작하기전에 가급적 현금 디파짓을 피하시라고 당부 드린다.

주택용자를 신청할때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중 자산 관련 서류가 바로 최근 두달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다. 과연 다운 페이먼트 할 여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트먼트 상에 나타나있는 금액이 다 본인의 자산이 맞는지 확인 하는데, 통상 이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런 심사 과정에서 바로 이 두달치 은행 스테이트먼트 상에 나타나있는 입금 기록들중에 큰금액의 입금 즉, Large Deposit으로 규정되는 입금기록은 반드시 그 출처를 증명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주택용자심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바로 이 Large Deposit은 용자신청인 개인의 증명된 월소득의 50%를 넘

어가는 경우 또는 구매하고자하는 주택 가격의 1%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5,000인 용자 신청인의 경우 한번의 입금기록이 월 증명소득 \$5,000의 50% 즉, \$2,500 이 넘어가는 입금기록에 대해서는 모두 그 출처를 증명하도록 되어있다. 또 정 부용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용자신청인의 경우 만일 30만불 가격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30만불의 1%, 즉 \$3,000 을 초과하는 입금기록을 Large Deposit 으로 규정하고 그 출처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런 라지 디파짓이 현금이라면 출처를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현금 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온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될 일들은 미리 피하길 권유한다.

대부분의 용자은행은 현금 라지 디파짓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입금금액만 큼은 빼고 남은 금액만을 인정을 하지만, 때로는 심한경우 너무 잦은 현금 디파짓때문에 아예 그 해당은행 계좌 자산 전체를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미리 위험을 피해나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당부 드린다.

아직도 많은분들이 주택 용자를 하기 전에 은행에 돈이 최소한 두달 이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된다.

반드시 두달이상 은행에 돈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만일 출처를 증명할수 없는 돈이 있다면, 또 그로인해 주택용자를 얻는데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미리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

▷문의: 703-868-7147

**부동산 투자 시의 세금 감면 혜택**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게 되는 렌트수입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가격의 30~50%만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는 은행에서 용자를 얻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지렛대효과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가령 100만 달러 짜리 아파트를 35만 달러 다운하고 샀는데 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135만 달러가 되었다면 투자금액의 100%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고 성공적인 투자자일수록 굳이 용자할 필요가 없어도 최고의 투자수입을 내기 위해 용자를 하여 부동산을 사고 남은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기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입이 많은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걱정하는 세금 문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매달 내는 용자 페이먼트의 이자 부분이 세금 공제가 된다. 국제청 (IRS)은 투자용 부동산의 소유를 비즈니스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리비는 물론이고 부동산에 관련된 여행 경비, 교육비, 유틸리티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금혜택이 감가상각인데, IRS는 부동산의 땅을 제외한 건물 부분을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서 가치가 떨어

진다고 생각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공제할 수 있게 한다. 즉 매년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간주해 감가상각하여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당연히 절세된 만큼 수입이 늘게 되고 그만큼 재투자의 기회가 늘게 된다.

또 큰 혜택 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부를 안겨준 1031교환(익스체인지·Exchange)이다. 모든 투자부동산은 판매 후에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관한 세금(Capital Gain Tax)의 납부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비용을 뺀 실제 수입에서 많게는 35% 이상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매매한 건물에서 나온 돈을 다운하고 더 큰 다른 부동산을 산다면 세금을 미루어준다. 즉 부동산 투자를 통해 들어온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연장법인데 많은 투자자가 처음 시작한 작은 주택을 사서 렌트를 주다 몇 년 후에 이익을 보고 팔아 계속 세금납부를 유예시키며 더 큰 부동산을 사는 것을 반복한다.

그리고 1031교환에 의한 세금연장은 다음 팔 때까지이지만 다시 팔 때도 다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면제된 큰 액수의 세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재산증식의 속도에 가속이 붙게 된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안정기이거나 혹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저성장기일 때에는 건물 가격의 인상 폭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즉 투자 대비 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인지 현금 형태의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주거 부동산의 수요도 많다.

미셸 원·BEE부동산 부사장

**가치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구매 가격입니다. 영원히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한 투자자는 어느 기간 동안 건물을 소유한 후에 그 건물을 처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은 투자 기간 벌어들인 임대수익과 건물 매각가격과 구매가격의 차이인 매각수익을 함께 계산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한 건물을 장기간 보유한 후 어떤 가치로 매각할 수 있을지를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투자 기간의 가치 상승률 계산을 통한 투자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자는 미래의 매각가격을 역산하여 현재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래 예상 매각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시장의 역사적 성장률, 경제 전망, 지역 발전 계획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400만 달러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10년 후에 이를 1000만 달러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연평균 복리 상승률을 계산하여 현재의 구매 결정이 경제적으로 타당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 예상되는 가치 상승률은 복리로 계산하는 공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복리계산 공식을 적용하면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약 8.4%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투자한 부동산이 10년 동안 연평균 약 8.4%씩 증가할 경우 투자자의 목표인 1000만 달러에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투자 결정 과정에서는 가치 상승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침체기에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미래 시장 상황을 예측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는 시장 변동성, 재산의 위치와 상태,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투자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익, 운영 비용, 재개발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종 목표입니다.

앞선 예시의 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자율의 변동, 리스크 관리, 그리고 10년 동안 운영 임대 수익 등을 고려하여 가치상승률 8.4%를 통한 목표수익이 실현 가능하다는 이 건물을 4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상승률이 5%로 나오면, 현재 가치가 6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합니다. 즉, 현재 시장가격보다 200만 달러는 높아야 10년 후 1000만 달러에 매매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어질 것입니다.

렉스 유·CBRE Korea Desk 대표

▶ 1번 '주택 보험료'에서 이어집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산불과 각종 자연재해로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보험사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보험 갱신과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는 보험사에게 소유 주택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

홈오너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경 관리, 폭우와 폭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큰 나무는 제거하고 산불 위험지역의 경우 집 주변의 덩굴 제거 및 마당의 목재 데크와 같은 가연성 자재를 내화성 자재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 지붕 업그레이드 역시 폭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보험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추천 투책 리스트**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b>Bowie</b> \$639,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b>Edgewater</b>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b>Rockville</b> \$280,000 콘도	 <b>Perry Hall</b> 싱글홈, 방3, 화2.5	 <b>Ellicott City</b> \$689,000 싱글홈, 랜치 스타일, 좋은 학교, 0.75 에이커
 <b>Cooksville</b>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b>Columbia</b> 싱글홈, 방4, 화2	 <b>Ellicott City</b>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b>Rockville</b> \$520,000 싱글홈, 방4, 화2	 <b>Cockeysville</b> \$449,000 싱글홈, 방4, 화2.5

租金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b>Elkridge</b> 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	 <b>Hanover</b>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	 <b>Germantown</b>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b>Glen Burnie</b> 월 \$1,750 타운홈, 방2, 화1	 <b>Hanover</b>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b>Odenton</b>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 5월 **HOT** 리스팅

##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 주택 매매 /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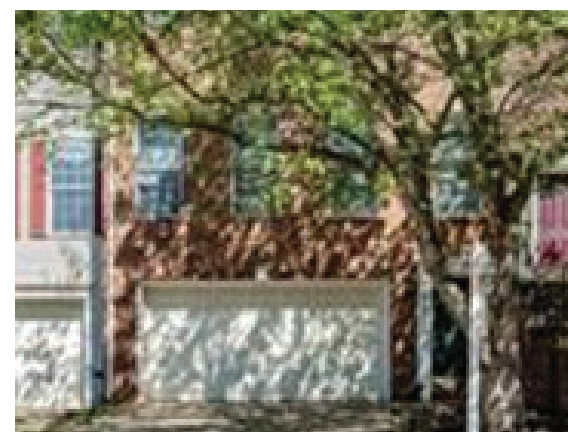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콘도 (타운홈타입 3층짜리)**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 약척같은 부동산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 손흥민, EPL 300경기·120골에도 고개 폭 “실망스러워”

리버풀전 2-4 패배, 4연패 수렁  
챔스리그 진출 사실상 물거품  
“주장으로서 역할 못했다” 자책

‘캡틴’ 손흥민(32·토트넘·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300번째 경기에서 120호 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소속 팀 토트넘의 4연패를 막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토트넘은 6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에서 2-4로 완패했다. 먼저 4골을 내준 토트넘은 후반 27분 히사를리송, 후반 32분 손흥민이 추격 골을 터뜨렸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비록 팀은 졌지만, 손흥민은 반짝반짝 빛났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EPL 통산 300번째 출전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레전드 반열에 올랐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손흥민에 앞서 ‘EPL 300경기’ 고지를 밟은 선수는 ‘거미손 골키퍼’ 위고 요리스(LA FC)와 ‘특급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두 명뿐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토트넘을 넘어 EPL의 전설 반열에도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날 통산 120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EPL 역대 득점 순위에서 공동 22위로 올라섰다. 리버풀과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스티븐 제라드(은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올 시즌만 따지

면 17호 골(9어시스트)이다.

손흥민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승점 60)은 이날 패배로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토트넘이 4연패에 빠진 건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 리그 순위 5위를 간신히 지켰지만, 4위 애스턴 빌라(승점 67)와의 격차가 승점 7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사실상 좌절됐다. 프리미어리그에선 4위 팀까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자격을 얻는다. 토트넘이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기고 애스턴 빌라는 2경기를 모두 져야 역전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손흥민은 경기 후 굳은 표정으로 “힘 들고 실망스럽다.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장으로서 나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난 항상 (주장으로서) 팀원들을 강하게 밀어주고 싶다. 우리는 지금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계속 고개를 들고 이 고통과 패배를 감내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주영 기자



손흥민의 EPL 300경기 출장 기념 일러스트.

[사진 토트넘 인스타그램]

## “내 인생의 해답 찾는 작품”...진은숙 18년 만의 새 오페라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내년 초연  
최고의 학자 되길 열망하는 주인공  
‘파우스트’처럼 꿈 거러하는 이야기

‘작곡가 진은숙이 희한한 오페라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음악계에 파다했다. ‘양자역학에 대한 오페라’ ‘물리학자가 주인공이다’ ‘꿈에 관한 것이다’ 등의 짐작과 함께, 작곡가가 음악뿐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만들고 노래 대본까지 쓴다고도 했다. 사실이였다. 2007년 첫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후 18년 만의 오페라다.

최근 진은숙(63)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인생에 대한, 또 나에게 대한 질문의 오페라다. 해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답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새 오페라를 설명했다. 그라베마이어상(2004년), 쇤베르크 음악상(2005년), 시벨리우스 음악상(2017년), 레오니소브 음악상(2021년) 에른스트 폰 지멘스상(2024년) 수상자인 그는 202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을 맡고 있다. 이번에도 음악제를 위해 한국에 들었다.

오페라 제목은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150분짜리 2막 오페라다. “지구에서는 달의 한 면만 본다고 해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자신의 완전히 다른 모습, 그게 달의 어두운 부분이지요.” 한 물리학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볼프강 파울리(1900~1958). 양자역학을 체계화한 그는 194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진은숙은 파울리와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1875~1961)의 관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파울리는 꿈을 이야기하고, 융은 그에 대한 해석을 내놓던 사이였다. 진은숙은 남에게 보이지 않았던 천재 물리학자의 모순적 성격, 욕망을 발견했다. 그다음은 진은숙의 상상이다. 오페라에서 융은 파울리에게 “최고의 학자가 되고 행복까지 얻도록 도와주겠다”며 꿈을 넘기라고 한다. 파울리는 파우스트처럼 꿈과 그 꿈속 세 인물까지 모두 넘긴다. 오페라



작곡가 진은숙이 18년 만에 두 번째 오페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목은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천재 물리학자가 등장하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썼다. [중앙포토]

에서 파울리와 융은 새로운 이름으로 나오며 바리톤이 배역을 맡는다. 꿈속 세 인물 중 하나인 여성도 중요한 배역

이다.

“모든 것을 가져간 융은 결국 무엇도 돌려주지 않아요. 대신 파울리의 꿈은 점점 줄어들고 더는 꿈을 꿀 수 없게 되면서 학자로서 약속했던 이론도 발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파울리는 다시 융을 찾아간다. 또 융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 이어지는 마지막이 오페라의 핵심이다. “파울리는 융을 죽이려 하지만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말만 들죠. 결국 둘은 하나의 자아였던 거예요.” 새 오페라는 해피엔딩과 거리가 멀고, 자아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담고 있다. “상대방이 나의 반쪽이면서 서로 연관된, 일종의 양자역학이기도 해요.”

오페라 스토리를 만들고 대본까지 쓰는 작곡가는 흔치 않다. “2017년 앨리스의 후속편 오페라를 계획하다 무산됐죠. 그 후로 이상하게 앨리스에게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파울리를 발견해 책도 많이 읽고, 이야기를 만들

어 나갔어요.” 진은숙은 독일어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자료 조사와 시놉시스를 만든 시간을 빼면 석 달 걸렸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썼다. 직접적인 물리학 이야기는 없다. 그래도 쉬운 오페라는 아니다. “청중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어두운 작품에, 대사가 길고 얘기도 많죠. 청중은 단순한 이야기에 상상력을 가미하는 오페라에 익숙할 텐데, 이걸 그렇지 않거든요.”

진은숙은 온 힘을 다해 작품을 쓴다. “이번 작품이 끝나고도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끝나면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도 “아침에 눈 떠서 새벽까지 이 오페라만 쓰고 있다”고 했다. 진은숙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 완성했고, 올해 말까지는 다 마칠 생각”이라고 했다. 오페라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의 초연은 내년 5월 18일부터 독일 함부르크 오페라에서 켄트 나가노의 지휘로 4회 예정돼 있다.

김호정 기자

##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http://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 건너편) | E-mail : lee@jaelaw.com





###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Jim: So how was New York City?  
짐: 그래 뉴욕은 어땠어?

Roger: Oh it was great! Just great!  
로저: 와, 좋았어! 정말 좋았어!

Jim: How was the weather?  
짐: 날씨는 어땠어?

Roger: Couldn't be better: sunny blue skies cool breezes.

로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 맑고 하늘도 파랗고 바람도 선선하고.

Jim: How's the family?  
짐: 가족들은?

Roger: Everybody is good. It was great to see everyone.

로저: 모두들 좋아. 모두 보니 아주 좋더라고.

Jim: Did you get to see any plays while you were there?

짐: 있는 동안 연극 볼 기회는 없었어?

Roger: No I couldn't. My family had me pretty busy.

로저: 응 못봤어. 가족들이 잘 놓아주질 않아서.

Jim: Do you see yourself moving back to New York?

짐: 뉴욕으로 다시 이사갈 생각은 있어?

Roger: Not right now but I do want to make it back for the Christmas holidays.

로저: 당장은 아니고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다시 가보고 싶긴 해.

#### 기억할만한 표현

▶ pretty (busy): 아주 매우 (바쁘다)

"It's pretty hot today. Let's not play tennis."  
(오늘은 꽤 덥네요. 테니스는 관둡시다.)

▶ do you see yourself?: ~하는 걸 상상이 가세요?

"Do you see yourself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some day?"  
(장차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 상상이 가요?)

▶ make it back to or for: ~에 다시 가다

"I'm going to try to make it back for supper tonight."

(저녁 전까지 들어가도록 노력할게요.)

### get to do or have (something); ~할 기회가 생겼다

(Jim picks Roger up at the airport in Los Angeles ~)

(짐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로저를 차에 태운다)

####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가로 열쇠

(1)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제대 후에 편성되는 제도. ~ 중령 (3) 온도계에서 온도를 나타내는 기동 부분 (5)생일이나 졸업 등에 주는 물건 (6)축제나 큰 행사에 앞서 그 전날 밤에 베푸는 잔치 (7)신기한 술법을 부려 자신의 몸을 바꾸거나 감춤. 여우가 ~을 해서 새색시로 변장했다 (9)나무를 곁에 밀어 깔는 연장 (11)윗사람의 부인, 스승의 부인, 남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 (13)오래전부터 친히 사귀어 잘 아는 사람. □년□□ (15)늪지 아니하고 오래 삶 (17)조선 시대에,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 (20)혼인에 관한 일. 삼대 적선을 해야 동네 ~를 한다 (21)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 고려청자에는 ~의 정성이 배어 있다 (23)살, 가죽, 뼈가 모두 암자색(검은색)인 닭 (24)춤거나 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살갗이 오그라들며 곁에 좁쌀 같은 것이 도톨도톨하게 돋는 것 (25)무계가 천금 같음. 그 가치가 매우 귀함 (26)젓니가 빠진 다음에 나는 이. 모두 32개

#### 세로 열쇠

(1)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기념으로 주고받는 물품 (2)경기에서 이기고 있다가 형세가 뒤바뀌어 짐 (3)손으로 직접 만들. ~ 구두 (4)군대가 한 지역에 머무름 (5)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기독교의 전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8)큰 배 위에 갈아 놓은 넓고 평평한

바닥 (9)남자들이 한복을 입을 때, 바지의 발목 부분을 매는 끈 (10)군대, 탐험대 따위의 활동의 기점이 되는 근거지. 캠프 (12)장작이나 나뭇가지, 검불 등을 쌓아 놓고 피우는 불 (13)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 (14)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글 (16)이탈리아의 수도 (17)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 (18)얼어붙어 공중에 길게 매달려 있는 얼음 (19)소나 말, 양 따위를 놓아기르는 곳 (20)네 명의 선수가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의 순서로 헤엄치는 수영 경기 (22)코와 윗입술 사이에 골이 진 곳 (23)무릎 관절 안쪽 (24)2월 8일(한국시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러시아의 도시

#### 스도쿠

5			1		3			
			3	5			6	
1	4						3	
	7	5	8					
	9		6		2		4	
					5	7	1	
		4					7	6
		9			1	5		
			9		4			8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4	1	4	2	6	9	5	7
4	2	5	1	9	7	6	3	8
9	7	6	8	5	3	4	1	2
6	1	7	5	3	4	2	8	9
5	8	2	7	9	1	6	3	4
3	9	2	6	1	8	5	7	4
7	5	3	9	6	2	8	4	1
1	8	9	7	4	5	3	2	6
2	6	4	3	8	1	7	9	5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 1년 정기 구독료 \$120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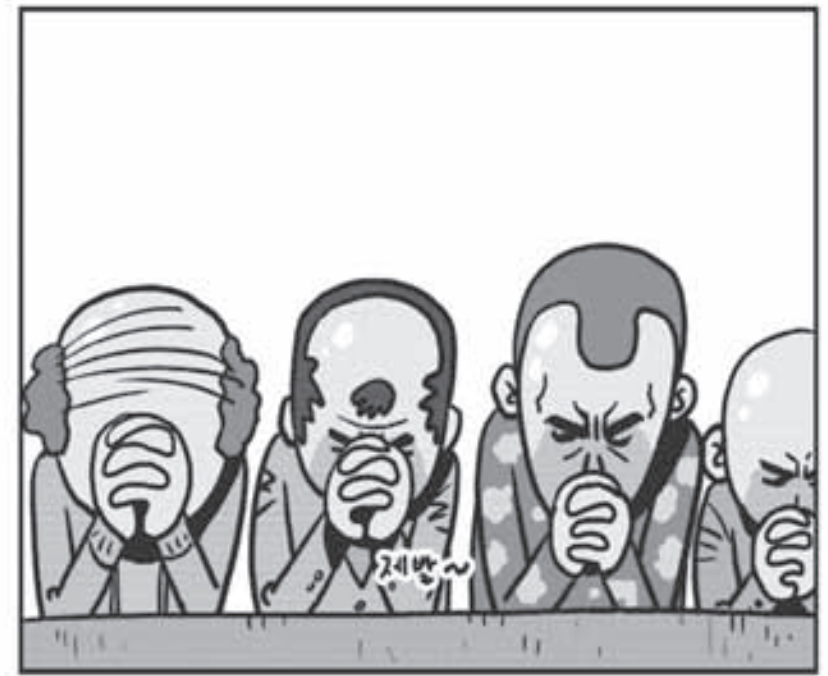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기도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HAPPY Mother's Day **마더스데이 감사 스페셜**

최신 제품으로~ 업계 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들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 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삼강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향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폼'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ECO

\$2,900 \$2,300 \$3,000 \$2,500 본토휴침대 100% 생향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침대**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빻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숙면 돕는 찜질 효과

원적외선 명품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 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원적외선 명품 매트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 흡수 전자파 완전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 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원적외선 명품 매트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 흡수 전자파 완전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 흡수 전자파 완전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턴 지정 대리점

**월턴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 이상 최고급 라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 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티핑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 720kg 무게 채우고 100% 열효율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740바렐

강력 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심, 관상동맥 질환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129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딤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뀔 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몽 매트**

2020년 최우수 제품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9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약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a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andhomehealth.com

###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치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화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르뱅 베이커리 캐쉬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워싱턴 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를 구합니다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 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수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세탁/엘레레이션>**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폴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레레이션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윈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타임/폴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워키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상통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위상통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플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임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덕로드.  
 202-271-2726

##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군  
 410-599-1800  
 스포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차고 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블링강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및 은행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말 걸어서 5분. \$1,150  
 개인 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 렌트  
 방1, 화장실1, 냉장고, 인터넷/취사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 (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렌트. 전망이 좋고 깨끗합니다.  
 가구원비, 학생, 직장인 환영 (여자분)  
 571-232-6052  
 애넌데일 방 렌트(원룸스타일),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사워실, 키친 완비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몰 부근 싱글홈 방 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홈 방1개,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 렌트  
 지하방+거실, 워싱 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원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방 렌트, 홀디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 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 뒤편 타운하우스  
 지하실 방 하나 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원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 근처 타운홈 방 세놓음  
 전화: 571-699-9707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  
 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 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원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햄 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 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No HOA \$470,000**  
 1층, 시니어 생활편리 (방 3),  
 0.23 에이커 대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방 1, 화 1,  
 병원, 샵핑몰, 그로서리 등 근접 용이

**1층 콘도 \$310,000**  
 방 2, 화 2, 전체 실내 Hardwood 구조  
 저렴한 콘도피 \$260 (Water, Trash 포함)  
 주차 여건 좋음, 샵핑몰 Costco,  
 병원 등 인접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9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주차장.  
703-966-9937



##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장 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장 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당,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장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장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장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장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장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입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크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i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힐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춘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 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업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깃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 〈중고품/기타매매〉

19년 커머셜 Ford 450/110,000마일/\$55,000  
301-751-1631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베라렘 \$100 -3bikes \$100  
-tools \$100 -living room set \$300  
문의: 703-581-2631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묘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50(사용설명서)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센트 4-9 S P번까지 8개  
-단랍 (스페인제) 3-9 PS 7개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이이다: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서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달라,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달가렛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쉬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 MD 업소 안내

## 전기 공사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 마이클 장

꿈과 열정에 의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페인트  
◆목수◆전기◆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구인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래근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로고 하면 남녀 모두 흥공가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유효유 젤

**1-213-210-9720, 전화,보이스톡,카톡,텍스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루 샵**  
 Up to 40%  
 핫딜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루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루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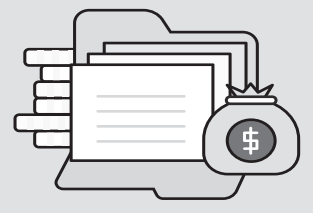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CONTACT US : EMAIL / TXT ONLY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32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 2,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업데이트

**\$317,000**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독점**

새로 리모델한 타운하우스

**Woodbridge \$2,400**

엔드 유닛 타운 홈, 차고1



**Woodbridge \$2,750**

2층 타운 홈, 엔드 유닛, 2,362 SF, 차고1, 고급 나무 마루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